

자토석독구결 자료 『구역인왕경』 권상, 『자비도량참법』 권4의 표기와 어휘

강서현(고려대)

고려시대 석독구결 자료는 크게 화엄경 계통(『화엄경소』 권35, 『화엄경』 권14)과 유가사지론 계통(『유가사지론』 권20, 『합부금광명경』 권3)으로 나뉜다. 『구역인왕경』(이하 <구역>)과 『자비도량참법』(이하 <자비>)은 두 계통 자료의 특징이 혼재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다. 문현수(2020)에서는 <구역>과 <자비>의 석독구결 현토 양상을 통하여 각 자료가 어떠한 계통의 특징을 따르는지 살펴본 바 있다. 그 결과 <구역>은 화엄경 계통과 유가사지론 계통의 특징을 비교적 고루 가지고 있고 <자비>는 이에 비해 화엄경 계통의 특징이 더 우세하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 성과를 종합하고 새로운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구역>과 <자비>의 표기 및 어휘를 정리하고, 두 자료의 표기·어휘적 특성을 재검토할 것이다.

1.1. 구역인왕경 권상

- 1970년대 초에 발견되어 심재기(1975)에 처음 소개됨. 석독구결의 존재를 알린 상징적 자료임.
- 1973년 12월 충남 서산군 운산면 문수사의 금동여래좌상 복장품 조사 중 발견됨. 동시 출품된 자료 중 1097년과 1346년에 해당하는 간기가 적힌 발원문이 있음(남풍현·심재기 1976). 현재 수덕사 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상권 2, 3, 11, 14, 15장이 확인됨.
- 서지사항으로는 책 크기가 가로 57.4cm, 세로 30.6cm이고 판면은 가로 53.4cm, 세로 21.9cm임. 좌측 상단에 <舊譯仁王經, 上>이라고 적혀 있고 하단에 장차가 새겨져 있음. 서명과 장차가 본문의 글에 침입되어 있음. (보통 권자본의 경우 이 부분이 면을 서로 연결하는 곳으로 제목과 장차가 가려지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그렇게 되면 본문을 가리게 됨. 따라서 절첩본이었을 가능성이 있음.) 행자수는 25행 17자에, 4면으로 접혀져 7/6/6/6행으로 나누어져 있음(남권희, 1997:169-170).
- 남풍현(1985)에서는 같이 발견된 복장품과, 구결에 반영된 언어적 현상을 반영하여 12세기 중엽에 구결이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이후 남풍현(1996)에서는 이 견해를 수정하여 13세기 중엽으로 기록 시기를 추정하였다. 남권희(1997)에서는 복장품의 간행 시기 및 서지적 검토를 통해 12세기 중엽부터 14세기를 전후한 시기 즈음, 13세기 후기에 기록되었을 것이라고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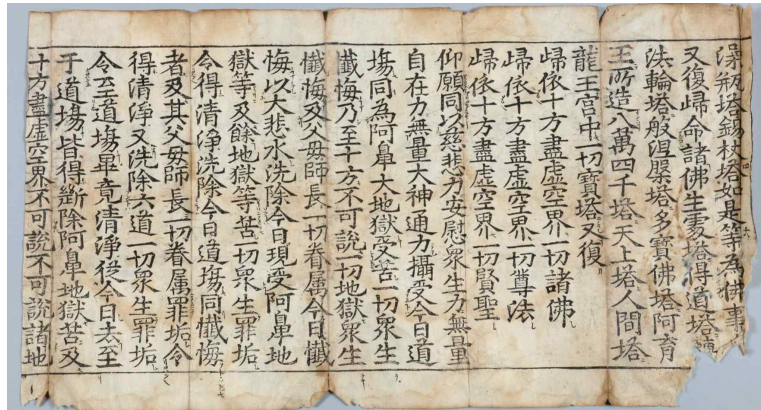
<그림 1>

1.2. 자비도량참법 권4

- 2015년 12월 경주 기림사의 정보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자료들을 조사하면서 발견된 것으로, 자토석독구결 자료 중 가장 최근에 확인된 자료임. 권4의 제5장(제17-21)장이

발견되어 있고, 목서로 석독구결이 기입되어 있음. 다른 판본과 비교했을 때 고려 후기인 13세기의 판본과 유사한 체계를 보임. 본문에 새겨진 글자의 서체 및 판본의 시기는 13세기 중엽으로 추정되고 구결도 그 무렵에 기입되었을 것으로 추정됨(남권희·남경란 2016:200-201).

- 서지사항으로는 절첩의 크기가 30.3×10.4cm이며, 상하단변(上下單邊)에 지고(紙高)가 30.3cm, 광고(匡高)는 25.3cm이다. 판심제(版心題)는 ‘四’이고 21행 13자(간혹 14,15자)로 전 5면에 각 면이 4행씩 배열되어 있다. 하단부에 누습의 얼룩이 있다 (남권희·남경란 2016:217, 남경란 2018:8).



<그림 2> 자비도량참법 권4 18장

2. 『구역인왕경』 권상, 『자비도량참법』의 표기

- ‘sktot_2022_09’를 토대로 하여 표기 및 어휘를 분석함. 『자비도량참법』은 아직 sktot에 형태 주석이 기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본 발표를 준비하며 sktot의 형식에 따라서 『자비도량참법』의 주석을 달았음. 주석본은 [부록3]으로 본 발표문에 수록되어 있음¹⁾.
- 『구역인왕경』 권상, 『자비도량참법』에 사용된 구결자의 빈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1], [부록2] 참고.

2.1. 『구역인왕경』 권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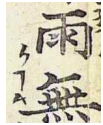
- 생략 표기가 많지 않고 역독점을 포함한 모든 구결이 상당히 정확하게 기입되어 있음(장윤희 2004:71).
- 조사 결과 역독점이 한 곳에서만 누락됨.
 - <A구인03:11-12> 六方ろセ子刀 亦ッ1 復り 是リX 如1ッヒハニ分
- 총 2,620개의 구결자가 현토되어 있음.
- sktot 안내문에 제시되어 있는 76개의 구결자 중 甲斤印ヒ斗勿邑捨三一立而一与了又弋成 造心支目八恨는 쓰이지 않음.
 - 이중 ‘立, 而’는 화엄경 계통의 자료에서 비교적 빈번하게 쓰이나 유가사지론 계통 자료에서는 전혀 쓰이지 않았고, ‘一’는 반대로 유가사지론 계통의 자료에서 빈번히 쓰이나 화엄경 계통의 자료에서는 거의 쓰이지 않았음. <구인>에서는 ‘一’ 대신 화엄경 계통의 자료에서 자주 나타나는 ‘ㄱ’을 사용함.

1) 여러 부분이 논의를 통해 수정될 필요가 있음.

- ‘ㅈ’는 다른 석독구결 자료에서 빈번히 사용되었으나(총 306예) 유독 <구인>에서만 나타나지 않았음. 분량이 절반 가량인 <자비>에서도 ㅈ가 사용된 예가 5예 정도 보임. ‘ㅅ’(전체 56예)도 <구인>에서 확인되지 않음. ‘ㅊ’(총 363예)도 나타나지 않고 대신 ‘ㅅ’가 쓰임.

- 다른 석독구결자료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ㄱ’(58번) “ㄱ”(3번)과 “ㄱ”(1번)가 쓰임.

— ‘ㄴ’은 선어말어미, 수식언, 의문첨사 등의 자리에 쓰임. 다른 자료에서 쓰이는 ‘ㄴ’과 분포가 유사하나 ‘ㄴ’은 의문첨사로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다름. ‘ㄴ’가 의문첨사로 쓰인 예를 (1)에 제시함.



- (1) ㄱ. 云何セッソ乙 十地セ 行乙 護ノ今セ 因緣リッロウ今ウ <구인03:22-23>
 (“世尊이시여, 一切 菩薩은 어떠한 것을 佛果를 지키며, 어떠한 것을 十地의 行을 지킬 因緣이라고 하겠습니까?”)
- ㄴ. 一リカ 二リヒセ{之} 義一 其 事 云何セッロモウ <구인14:19-20>
 (하나이며 둘인 뜻은 그 일이 어떠한 것입니까?)
- ㄷ. 云何セ: 十方セ 諸ニ一 如來: 一切 菩薩: ノオ 文字乙 離 不冬ッソ 而… 諸一 法相ヲ 十行ッニシセソッロウ今ウ <구인15:21-22>
 (“어찌 十方의 모든 如來이니 一切 菩薩이니 하는 이가 文字를 여의지 않고 모든 法相에 行하신다 합니까?”)

- ‘ㄷ’은 ‘ㄴ’으로 판독되었던 바 있으나, 장경준(2006)에서 ‘火’의 이체자임을 밝히고 ‘火-1’로 칭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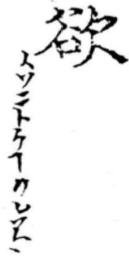
－ 해당 연구에서는 『금광명경』에 세필로 ‘心’ 자형이 기입된 점, 점토구결 자료인 『유가사지론』 권5, 권8에 각필로 같은 자형이 기입된 점 등을 고려하여 이것이 유가사지론 계통의 구결에서 사용하던 고�형(古形)의 구결자일 가능성을 제시함.

- (2) ㄱ. 時^ナ十六 大國王^セ 中^ウセ 舍衛國主^リニ^フ 波斯匿王^リ 名^ナ〔火〕 曰^ク白^ク尸 月光^ニッ 白^クウ^ク今^ナヲ
 《구인 02:24-03:01》(그때에 十六大國王 가운데 舍衛國主이신 波斯匿王이 이름이 이르기
 를 月光이라고 하는 이가)
- ㄴ. 十六 大國王^リ 意^ウナ 國土^ニ 護^ノ令^セ 因緣^ニ 問^ク白^ク{欲}ハ^クソ^クニ^クト^クウ^ク一^ニ入^ル乙^ニ〔火〕 知^ル白^クウ^ク
 一^ニミ^クッ^ク乃^ナ 《구인 03:17-18》(十六 大國王이 뜻에 國土를 수호할 인연을 묻고자 하시
 는 것을 알고 있다. 그러나)
- ㄷ. 幻化^ヲナ^クッ^ク 幻化^ニ 見^ルト^ク 衆生^ヲノ^ク一^ニ乙^ニ〔火〕 名^ナ 幻諦^ニノ^クヲ^クリ^クカ 《구인 15:08 난상
 》(幻化에서 幻化를 보고 중생이 하는 것을 일컬어 幻諦라고 하며)

- 다만 석독구결자료에서 ‘ㅍ’와 다르게 ‘ㅍ-1’은 ‘ㅍ’과 함께 나타나지 않음. 또한 금광명경에 기입되어 있는 세필 구결자 ‘ㅍ-1’나 점토구결자료 『유가사지론』의 ‘ㅍ-1’에도 ‘ㅍ’은 보이지 않음. 또한 ‘ㅍㅍ’과는 다르게 늘 목적어의 자리에 나타남. 석독구결자료에서 ‘ㅍ’이 목적어 자리에서 나타날 때도 역시 ‘ㅍ’이 나타나지 않음. 즉 ‘ㅍㅍ’과 ‘ㅍ-1’ 및 ‘ㅍ’은 출현 환경이 다름. 그렇다면 과연 ‘ㅍ-1’과, ‘ㅍ’이 단독으로 쓰인 경우에 ‘ㅍ’으로 읽을 수 있는 것인지 고민할 필요가 있을 듯함. (아래에 예 제시)



[그림20] 구인 0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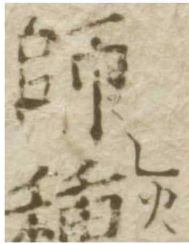


[그림21] 구인 03:17



[그림22] 구인 15: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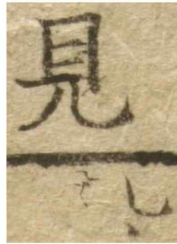
[그림] 장경준(2006:277)



[그림1] 금광 권3 15:06



[그림2] 금광 권3 15:09



[그림3] 금광 권3 13:04



[그림1-1]



[그림2-1]



[그림3-1]

[그림] 금광명경의 세필구결자 ‘火-1’ (장경준, 2006:270)

- 장경준(2006:271-276): 성암고서박물관 소장의 《유가사지론》 권5와 권8에서 파악된 해당 용례를 모두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이상 제시한 용례들에서 구결자 ‘火’에 대응되는 것으로 추정된 구결점 이 사용된 환경을 보면, 타동사로 쓰인 ‘名(일컫다), 除(없애다), 由(말미 암다), 起(일으키다), 顯示(드러내보이다), 曰(말하다)’ 등의 목적어 성분 에 단독으로 혹은 목적격 조사를 적기 위한 (‘ㄷ’에 대응되는) ‘34(·)’과 함께 쓰였다.

- (3) ㄱ. {是}리 如ㄴ 三昧神通ㄷ 相ㄷ火 一切 天人리 能ㄴ 測ㄴ 今 莫ㄴ ㄱ (이와 같은 三昧神通의 相을 一切 天人이 能히 헤아릴 이 없다.) <화엄17:19>
- ㄴ. 是 說法師ㄷ火 種種 利益ノ 安樂 無障ㄴ 身心 泰然ㄴ 今 ㄱ (이 說法師를 갖가지로 이롭게 하되 安樂 無障하고 身心 泰然하고 하게 하며) <금광15:06-07>
- ㄷ. 是 說法處ㄷ火 一切 諸 天人 非人 等ㄴ 今 及 諸 衆生人ノ 得ㄴ 上ㄷ 從 而 過ㄴ 說法ㄷ{之} 處 汗漫ㄴ 今 不ㄴ ㄱ (이 說法處에 대해서는, 一切 여러 天이니 人이니 非人이니 하는 것 등이니 여러 衆生이니 하는 것으로 하여 금 능히 위로부터 지나가 說法의 장소를 더럽히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금광 15:09-11>

- ‘ㄱ’의 예는 다음과 같다.

- (4) 譬入₁ 虚空₇ 花 {如} | ッカ 影₃ 三₃ 手₇ 無₇ | 丁ノ₇ 空 {如} | ッカ ッ₇ 3
 <구인15:07_2> (비유하면 虚空의 꽃과 같으며, 그림자이니 셋째 손이 없는 것이니 하는 것과 같으며 한 것이니)

- － 박진호(1998:137)에서는 ‘₃’는 ‘第’자의 略體로서 ‘第’의 훈이 ‘자히’이므로 이는 ‘자’로 읽을 수 있다고 하였다. 박성중(1999:214)에서도 ‘三₃’을 ‘세갓’ 또는 ‘세캇’ 정도로 읽었을 것으로 추정하였고, skt0t에서도 추정독음을 ‘자’로 제시하였다. 김무림(1999:95)에서는 ‘₃’의 본자를 ‘第’로 보았으나 훈차인 ‘자/자히’로 읽어야 할지, ‘데’로 읽어야 할지 확실하지 않다고 하였다.



2.2. 『자비도량참법』

1) 역독점

- 역독점이 들어갈 만한 자리 약 180곳 중 약 20곳에만 역독점이 확인됨. ([부록4] 참고)
- 역독점이 들어간 부분을 아래에 보인다.

<A자비17:03-05> 廣₇ 十方₇ 一切 地獄₃ 現₃ 受₇ | 當₃ 受₇ | 無窮無盡₇ | 一切 衆生₃ 及₇ 等₃ 一₇ 痛切₇ 五體投地₇ 世間₇ 大慈悲父₇ | 歸依₇ 白₇ |
 <A자비18:09-12> 仰願₇ 白₇ | 同₇ 慈悲₇ 力₇ 安慰衆生₇ 無量自在₇ 量₇ 無₇ 大神通力₇ |
 <A자비18:13-15> 大悲水₇ 以₇ 今₇ 道場₇ 同₇ 阿鼻大地獄₇ 苦₇ 受₇ | 一切 衆生₃ 爲₇ 懺悔₇ |
 <A자비18:15-17> 今₇ 道場₇ 同₇ 懺悔₇ 者₇ 及₇ 其 父母₇ 師長₇ 一切 眷屬₇ 罪垢₇ 洗除₇ 得₇ 清淨₇ |
 <A자비18:17-18> 又₇ 六道 一切 衆生₃ 罪垢₇ 洗除₇ 道場₇ 至₇ 畢竟 清淨₇ |
 <A자비19:01-03> 畢竟 復[甲] 於三途₇ 入₇ 不₇ 畢竟 復[甲] 於地獄₇ 墮₇ 不₇ 畢竟 復[甲] 十惡₇ 業₇ 爲₇ 五逆₇ 罪₇ 造₇ 諸₇ 苦惱₇ 受₇ 不₇ |
 <A자비19:07-11> 乃₇ 至₇ 進修₇ 十地₇ 行₇ 滿₇ 金剛心₇ 入₇ 等正覺₇ 成₇ 還₇ 十方 一切 衆生₃ 度₇ |
 <A자비19:14-16> 經₇ 云₇ 閻羅王₇ 一念₇ 惡₇ 便 獄事₇ 總[次集]₇ 自₇ 身₇ 苦₇ 受₇ 亦₇ 論₇ 可₇ 不₇ |
 <A자비19:20-20:02> 毘沙王₇ 今₇ 閻羅王₇ 是₇ 十八 大臣₇ 今₇ 十八 獄₇ 主₇ 是₇ 百 萬₇ 之 衆₇ 今₇ 牛頭阿旁₇ 是₇ 而₇ 此 官屬₇ 悉₇ 北方 毘沙門天王₇ 隸₇ |
 <A자비20:02-04> 長阿含經₇ 云₇ 閻羅大王₇ 住₇ 所₇ 處₇ 閻浮提 南₇ 金剛山 內₇ 在₇ 王宮₇ 縱廣₇ 六₇ 千₇ 由旬₇ |
 <A자비20:05-06> 晝夜 三時₇ 大₇ 銅鑊₇ 有₇ 中₇ 烔₇ 銅₇ 滿₇ 自然₇ 前₇ 在₇ |
 <A자비20:06-08> 大₇ 獄卒₇ 有₇ 王₇ 臥₇ 熱₇ 鐵₇ 床₇ 上₇ 鐵₇ 鉤₇ 口₇ 擘[波]₇ 烔₇ 銅₇ 之₇ 灌₇ |
 <A자비20:08-09> 咽₇ 從₇ 徹₇ 下₇ 焦爛₇ 不₇ 無₇ 彼₇ 諸₇ 大臣₇ 亦₇ 復₇ 是₇ 如₇ |
 <A자비20:20-21> 是₇ 如₇ 各₇ 量₇ 無₇ 地獄₇ 有₇ 以₇ 眷屬₇ 爲₇ |
 <A자비21:04-05> 獄卒₇ 答₇ 言₇ 此₇ 如₇ 罪惡₇ 諸₇ 苦₇ 受₇ 者₇ 父母₇ 孝₇ 不₇ |
 <A자비21:14-15> 我₇ 筋[力]₇ 此 衆生₃ 疲[待]₇ 非₇ 令₇ 劫₇ 從₇ 劫₇ 至₇ 其₇ 與₇ 相對₇ |
 <A자비21:17-18> 此₇ 衆生₃ 觀₇ 乃₇ 苦₇ 至₇ 可₇ 終₇ 肯₇ 避₇ |

- 乙 뒤: 역독점이 쓰여야 할 자리에 한 번도 표시되지 않음.
- ㄹ, ㄹ+, ㄴ+ 뒤: 18곳 중 7곳에 표시됨.
- ㄱ/ㄱ+부정사: 17곳 중 3곳에 표시됨.
- 구결자 없는 곳: 12곳 중 8곳에 표시됨. ('量 無 1'에는 세 번 모두 표시되지 않음. '是/此 如 ㄴ 1'은 세 번 중 한 번 역독점 표시되지 않음.)
- ㄴ 可/容セ ヽ: 6곳 중 한 번도 표시되지 않음.

- <화엄경소> 살펴 본 결과 역독점 표시될 만한 곳 약 550곳 중 약 50곳에만 표시됨.
- 역시 '乙' 뒤에는 거의 달려 있지 않은 듯함. ㄱ/ㄱ+부정사의 경우도 역독점 표시되어 있는 경우 적음. 'ㄴ 可/容セ ヽ'도 마찬가지임. 처격조사 뒤에도 거의 표시되어 있지 않음.
- 구결자 달리지 않은 경우에는 역독점이 달린 비율이 비교적 많은 듯함.

2) 구결자

- 총 1,400개의 구결자가 현토되어 있음.
- sktot 안내문에 제시되어 있는 76개의 구결자 중 斤直又ヒ之巴冬分邑捨火心三一而与
リ又千弋成旁造心且恨 은 사용되지 않음.
- 그중 '冬'은 전체 75예 중 화엄경과 화엄경소에 쓰인 경우는 6예뿐임. <자비>가 화엄경 계통의 현토 특징을 따르기 때문에 쓰이지 않은 것으로 보임.
- '分'은 모든 문헌에서 빈번하게 나타나지만 <자비>에서는 '分' 대신 'ㄴ'가 쓰임. 남권희·남경란(2016:221), 남경란(2018:18)에서는 'ㄴ'의 원자를 '彌'로 제시하였다.



- 다른 문헌에서 빈번히 사용되는 'ㄴ'은 <자비>에서 이체자 'ㄴ'로 나타남. 남권희·남경란(2016:224)에서는 이를 'ㄴ'의 일부분을 다시 약차한 것이라고 보았다.



- '毛'은 <자비>에서 3회 나타난다. '不毛ㄴㄴ 1' <자비19:16-18>과 같이 '不' 뒤에 나타나 '몯' 정도를 표기하는 데 쓰인 것으로 추정된다. (자세한 내용은 후술)
- '甲'은 <자비>에서 5번 나타나는 구결자로 '復'에만 현토되어 나타난다. sktot에서는 '復 [甲]'과 같이 표시되었다. <화엄경소>에서도 같은 환경에 나타난 예가 하나 존재한다(예. 復[甲] ㄴ <화소11:12-13>). (자세한 내용은 후술) '勿'도 <화엄경소>에 5번, <자비>에 1번 나타나고 다른 자료에 나타나지 않는다. 주로 '곧'으로 읽는 '印'(황선엽·이전경·하귀녀

- ‘sktot_2022_09’의 입력 자료를 바탕으로 어휘 분석하여 주목할 만한 어휘 위주로 기술.

3.1.1. 체언

- ‘ㅍ’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총 3개의 예가 나타나는데, 모두 ‘我’에 현토되었다. <구인>에 1예, 금광명경에 2예가 나타난다. sktot에서는 이를 전훈독자로 처리하고 있다.
- 박진호(2016:154-155)에서는 ‘我ㅍ’와, <화소>에 나타나는 ‘我ㅅ’, ‘ㅍㅅ’의 예를 들어 고려시대에 1인칭 대명사로 ‘나’뿐 아니라 ‘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1인칭 대명사 ‘우’를 어근으로 하여 복수의 접미사 ‘-리’가 결합하여 중세어부터 나타나는 ‘우리’가 생겨났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이와 달리 장윤희(2004:72)에서는 ‘我ㅍ’를 ‘우리’를 표기한 것으로 보고, 구결자 ‘ㅍ’가 두음을 표기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박성종(1999:214)에서는 ‘ㅅ’가 속격조사 뒤에 적힌 것으로 보았을 때 명사일 개연성이 있으나 그 존재가 분명하지 않다고 언급하였다. sktot에서는 이를 명사로 판정하고 형식 명사로 보아 ‘것’으로 풀이하였다.
- 다른 가능성으로 석독구결에 나타나는 ‘所ㅅ’의 ‘ㅅ’가 사실 ‘바’의 발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전훈독자로 형식명사 ‘ㅅ’를 나타내었다고 가정하면 위의 ‘ㅅ’와 연관 지을 수 있을 듯함. 그러나 지금으로는 단지 가능성 차원에서만 언급할 만함.

ㄷ. 念尸 已シッロッ1 {之}11乙 施ノ尸ム 心3十 悔ノ尸 所3 無セリッナ尸入乙 생각
함을 이미 하고서는 이를 보시하되 마음에 후회하는 바 없이 하는 것을 <화소

- 정재영·남성우(1998:246), 황선엽 외(2009)에서는 이를 ‘닷’으로 읽었으며, 황선엽 외(2009)에서 이것이 의존명사 ‘닷’으로 이어진다고 보았다. 다만 그렇게 본다면 중성의 / | /가 /· /로 바뀌는 과정을 상정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다.

3.1.2. 부사류

- {此} ㄷ

- sktot에서는 아래 예문의 ‘ㄷ’를 체언을 뜻하는 ‘N’으로 주석하였으나 이와 비슷한 환경에서 ‘ㄷ’를 수식언을 뜻하는 ‘M’으로 주석하는 경우도 있어 통일이 필요할 듯함.

(9) 他方ㄷ 大衆ᄃ 及ᄃ 以ᄃ 化衆ᄃ {此} ㄷ 三界ㄷ 中ᄃ ㄷ 衆ᄃ ᄃ 十二大衆ᄃ (他方の 大衆이니 化衆이니 이 三界 中에 있는 대중이니 하는 十二大衆은) <구인 02:07-08>

(10) ㄱ. {此} ㄷ M, 菩薩[ㄱ J,] {是} ㄷ M, 事 有[ㄷ V, ㄱ Et, ㄷ N, ㄷ J,] 故[ㄷ R,] {是} ㄷ M, 事 有[ㄷ V, ㄷ Ec,] (이 보살은 이 일이 있는 까닭으로 이 일이 있으며,) <화소 01:04-05>

ㄴ. 共[ㄷ M,] 來[ㄷ V, ㄷ Ec, ㄷ J,] {此} ㄷ M, 大會[ㄷ J-, ㄱ -J,] 入[ㄷ V, ㄷ Ep, ㄷ Ec,] (함께 와서 이 대회에 들어오시며) <구인 03:06-08>

- 皆ㄷ, 共ㄷ, 與ㄷ, 俱ㄷ

- ‘共ㄷ’과 ‘與ㄷ’은 대체로 ‘다뭇’으로 읽는 듯함.
- 皆ㄷ: 이병기(2019)-미상, 박성중(1999)-‘皆ㄷ’을 ‘닷’ 혹은 향가에서 “모두”를 뜻하는 ‘*돈뭇’(頓部叱), 정재영(1998:159)-‘닷’, 정재영·남성우(1998:222)-‘닷’, 심재기·이승재(1998:55)-‘다뭇’
- ‘皆ㄷ’을 ‘닷’으로 읽는 견해는 중세어에서부터 나타나는 전칭양화사 ‘다’에 ‘ㅅ’을 결합한 데서 온 것으로 생각되는데,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함께’와 ‘모두/다’가 서로 가깝게 볼 수 있는 의미인 만큼(예. 독일어의 ‘zusammen’은 “함께”를 뜻하나 “모두 합쳐, 총”의 의미도 나타낼 수 있음), 심재기·이승재(1998)에서처럼 ‘共, 與’와 ‘다뭇’이라는 어휘를 공유했을 가능성도 검토해볼 수 있을 듯하다.
- ‘俱ㄷ’은 <구인>에서만 3회 출현하며 늘 ‘俱ㄷ-’로만 나타난다. ‘共, 與’와 뜻이 통해 정재영·남성우(1998)에서는 ‘다뭇-’로 읽었다.

- 方ㄷ

- <화소>와 <구인>에서 각각 두 번 나타난다. ‘方’은 “막 ~하다”의 뜻을 나타내었다.
- 정재영·남성우(1998:223)에서는 독법으로 ‘비룻’과 ‘뭇’을 제시하였고, 이병기(2014:32), 박성중(1999)에서는 ‘비룻’을 제시하였다.

(11) ㄱ. 若ㄷ 美ㄷ 味ㄷ 得ᄃ 專ᄃ 自ㄷ 受ᄃ 不ㄷ 要ᄃ 衆生ᄃ 與ㄷ 然ㄷ 後ᄃ 方ㄷ 食ᄃ (만약 맛있는 음식을 얻어도 오로지 스스로 받지 않고서 필히 중생에게 주고는 그리한 것으로부터 후에야 비로소 먹으며)

- 初セリ

- <구인>에서만 1회 보이고, ‘初セリッ’로 나타난다. 정재영·남성우(1998:223)에서는 ‘비르쇼’로 읽었다.

- 眞

- <구인>에서만 1회 나타나는 어휘로, 이병기(2014:51)에서는 ‘츄’으로 읽었다. 해당 예문에서 ‘眞’은 부사처럼 쓰였고 sktot에서도 ‘眞[ㄷ M,]’으로 태그되어 있다. 그러나 이 당시에 ‘츄’이 부사로 쓰일 수 있었는지는 고민해 볼 문제이다. 한글 문헌에서 부사로 볼 법한 ‘츄’은 19세기 말부터 확인된다. 조사 ‘-으로’가 붙어서 부사어로 쓰이는 것도 19세기 말부터 나타난다.

- (13) {此}ニ 無二ッ一入乙 通達ッハニ一乙 眞^ㄷ 第一義ヲ入ッハニ一リミノヲナ
 | (이 둘 없는 것을 通達하신 것을 참으로 第一義에 들어가신 것이라고 한다.)
 <D구인15:06>

- (14) ㄱ. 모든 선을 집히 힘썌이 츄 큰 죄오 <1890년대 성경직해 3:37ㄱ>
 ㄴ. 왕비논 엇지^ㄷ야셔 이런 덕왕을 박^ㄷ하고 그른 음심을 녀신^ㄷ고 츄 이다른 일
 이로다 <1895/07 유옥역전 41ㄴ>
 ㄷ. 턴쥬를 츄으로 스랑^ㄷ게 흠을 위^ㄷ함시오 <1890년대 성경직해 1:84ㄱ>

- 從セ

- 석독구결에서 대격을 논항으로 갖는 구문으로 자주 등장한다. 이병기(2014:32)에서는 ‘죇(𪛗)’으로 읽었다. 어간형 부사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 듯한데 sktot에서는 ‘從[ㄷ M,]’, 즉 부사형 어미나 접사가 붙은 것처럼 처리하고 있다. 다른 어간형 부사는 ‘爲[[三]V,]’나 ‘{如}[ㄷ V,]’와 같이 용언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從セ’은 ‘죇’이 아닌 다른 독법을 염두에 둔 결과인지 궁금하다.

- 相

- 장윤희(2006): ‘마조’로 읽음.
- 장윤희(2006) 주24: “相ノ’는 문맥상 “서로”의 의미가 파악되는데, 이 부사는 중세국어에서 ‘서르’로 나타나고 있어 ‘-오’말음을 가진 고대국어 표기형과 일치하지 않는다. 중세국어에서 ‘相逢’이 ‘마조 보아<두시언해 초간본 25:31b>’로 언해된 사실 등을 고려하여 여기에서는 ‘相ノ’를 ‘마조’로 읽는다.”
- 장고은(2013:96): ‘相^ㄷ’ 혹은 ‘相ノ’는 ‘難住^ㄷ’, ‘詰難^ㄷ’ 등의 서술어와 함께 쓰여 相互再歸辭(reciprocal)적인 쓰임을 보이는데, 15세기 국어의 ‘서르’에는 이러한 용법이 있으나 ‘마조’에는 이러한 용법이 없다. 따라서 ‘相^ㄷ’ 혹은 ‘相ノ’는 ‘서르’ 혹은 ‘서로’를表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이병기(2014)에서는 장고은(2013)의 의견을 소개하고 ‘相^ㄷ’를 ‘서로(서르)’로 읽었다.

3.1.3. 용언류

- 爾セッ一, 是セッ一, 然セッナ

- ‘爾セッ一’은 화엄경소에 3번, 구역인왕경에 6번 나타난다. 화엄경에서 ‘セ’은 N으로 주석

- <구인>에서 ‘爾_ㄹㄷㄷㄷㄷㄷㄷ
- 가 생략된 것으로 보았다. ‘爾_ㄹㄷㄷㄷ₁<화엄01:04>, 是_{ㄷㄷㄷㄷ}<구인02:18>도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진호(2008:325)에서는 ‘尔_ㄹㄷㄷㄷ’<유가28:16> 예를 포함하여 ‘ㄷㄷㄷ’이 첨기된 것이 가장 온전한 표기이며 나머지 ‘ㄷ’, ‘ㄷ’가 표기된 것은 생략형으로 보았다.
- 이에 더해 ‘然_ㄹㄷㄷㄷ’<구인15:10>와 ‘然_ㄹㄷㄷ’<화엄15:14> 등의 예 역시 ‘爾’, ‘尔’, ‘是’와 함께 조응적인 의미를 갖는 것으로, 형태 면에서도 한자 뒤에 ‘ㄷㄷ’, ‘ㄷㄷ’가 현토되어 유사하다. 따라서 이 네 종류의 표기는 모두 같은 용언을 가리키는 것이 아닌가 한다.
- > ‘然_ㄹㄷㄷ’ 심재기·이승재(1998:94), 정재영·남성우(1998:246)에서는 ‘그렇_ㄹ거다’, 이병기(2014)에서는 미상으로 처리하였다.
- 이병기(1999)에서는 ‘爾_ㄹㄷㄷ’의 독법을 미상으로 처리한 반면, 정재영·남성우(1998:224-225)에서는 ‘爾_ㄹㄷㄷㄷ’은 ‘열_ㄹ흔(열_ㄹ흔)’, ‘爾_ㄹㄷㄷ’는 ‘그렇_ㄹ저’로 다르게 읽었다. ‘爾_ㄹㄷㄷㄷ’을 ‘열_ㄹ흔’으로 읽는 것은 ‘今_ㄹㄷㄷ’의 독법에서 유추된 것으로 보인다. ‘爾’와 ‘今’ 모두 “이”에 상응하는 의미를 지니며, 동일하게 ‘ㄷ’이 표기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두 글자를 같은 음으로 읽는 것은 어느 정도 타당성을 지닌다고 판단되나, 중세한국어 시기에 ‘열’은 근접한 시간을 나타내는 의미로만 나타나므로 지시적 근칭으로 쓰이는 ‘爾’에 바로 대응시키는 것에는 별도의 설명이 필요하다.

- 문현수(2019:275)에서는 <구인02:19>의 ‘相り毛亦り’를 ‘相り’와 ‘毛亦り’로 나누고 이때 ‘毛’는 중세한국어의 ‘몸-’으로 이어지는 형태를 표기한 것이라고 보았으며, “서로 모여서”로 풀이하였다.

- 여기서 ‘故々’은 명사인지, 부사인지, 용언의 어근인지 그 정체를 알기 어렵다. 정재영·남성우(1998:234)에서는 이를 ‘듯(듯 혼듯)’으로 읽는 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병기(2014)에서는 동사류로 처리하고 독법은 미상으로 남겨 두었다.

(16) 是事乙以₁入₃故ノ我₁{於}罪人ヲ十片ヶセ慈心刀無セヨ故セ勿セ楚毒乙

加ットイナニ 望リナニ 其 苦リナニ 知[る] 慚イナニ 知[る] 恥イナニ 知[る] ヽ 復[甲] 更ニ 還テ 不ッロセノナニ (이러한 일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나는 죄인에게 조각만큼의 자비심도 없고, 일부러 초독(楚毒)을 더하는 것은 바라건대 그가 괴로운 것을 알고 부끄러운 것을 알고 수치인 것을 알고 하여 거듭 다시 도로 오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지만) <자비21:15-17>

- ‘故セカセ’라는 구성을 이해하기는 어려우나 sktot의 번역대로 ‘일부러’ 정도를 의미했다고 생각하면 ‘故セ의 독법 후보로 ‘짐짓’을 올려볼 수 있을 듯하다(17). 그러나 15세기의 쓰임으로 보면 ‘짐짓’이 “까닭, 원인”을 뜻하는 (15)의 용법까지 포괄하였다고 주장하기는 조심스럽다.

- (17) ㄱ.世上 豪傑이 範圍에 出 不스 算 算을 짐짓 업게 ㅎ시니 (世上豪傑 不出範圍 勝耦之籌 迺故齊之) <1447 용비어천가 08:5ㄱ>
 ㄴ.故 짐짓 고 <1752(1804) 주해천자문 35ㄱ>

• 斯モッ巴ハ

- <구인>에만 두 개의 예가 나타난다. 정재영·남성우(1998:227,229), 황선엽 외(2009)에서 모두 독법을 미상으로 남겨 두었다. “이렇게, 이와 같이”의 뜻을 나타내는 듯하나 정확한 내부 구성은 알기 어렵다.

- (18) ㄱ.今日ヲ 如來ニ 大光明乙 放ッニトナニ 斯モッ巴ハ 何セッ事乙 作ッセイッニトナニ (오늘 如來가 大光明을 발하시는 것은 斯モッ巴ハ(?) 어떤 일을 하고자 하시는 것인가?) 하였으며) <구인02:23>
 ㄴ.乃シ 十方セ 恒河沙セ 佛土ヲ 至リ 有緣ッナニ 斯モッ巴ハ 現ッモハニ (시방의 恒河沙 佛土에 이르기도록 인연 있는 곳에는 斯モッ巴ハ(이와 같이?) 나타나셨다.) <구인03:06>

3.2. 『자비도량참법』 권4의 어휘

3.2.1. 체언

• 今日尸

- (19) 大悲水乙 以ッホ 今日尸 阿鼻地獄 等ッナニ 及セ 餘ナ 地獄 等ッナニ (大悲水を 써서今日の 阿鼻地獄 같은 것이니 및 다른 地獄 같은 것이니 하는 데에서의 苦를 현재 받는 一切 衆生の 罪垢를 洗除하시어서 능히 淸淨하게 하시며 <자비18:13-15>

- 다른 자료에서 ‘日’ 뒤에 ‘尸’이 붙는 경우는 없다. ‘日’의 발음을 표기하는 듯한데, 그렇다면 ‘今日’은 ‘오늘날’ 정도로 읽히지 않았을까 한다. sktot 번역에서는 ‘今日尸’을 ‘今日の’라고 하였는데 ‘尸’을 속격조사로 본 것인지 의미 흐름상 단순히 ‘-의’를 덧붙인 것인지

궁금하다.

• 二七ヲ

- ‘ヲ’는 석독구결 자료에서 서수를 나타내는 데 쓰인 예가 여러 번 나타난다. 안대현 (2009)에서 보인 점토석독구결의 관련 예도 아래 함께 제시한다.

- (20) ㄱ. 一 一 ... 二七ヲ ... 三七ヲ ... 四七ヲ ... 五七ヲ ... 六七ヲ ... 七七ヲ ... 八 七
ヲ ... 九七ヲ ... 十七ヲ ... 十一七ヲ ... 十二七ヲ ... 十三七ヲ ... 十四七ヲ ... 十
五七ヲ ... 十六七ヲ ... 十七七ヲ ... 十八七ヲ ㄴ 1 <자비20:09-20>
- ㄴ. 一七ヲ{者} {於}一切 法 3 十 善惡 乙 分別 ノ ム 智 能 具足 ッ ㄴ <금광
05:02-03> (첫째, 모든 법에 대해 善惡을 分別하되 智와 能을 具足하며)
- ㄷ. 謂 1 長夜 3 十 數習 ッ 3 十 彼 乙 與 七 共居 ノ 七 増上力 ㄴ 故 ノ ッ 3 或 復
樂 ㄴ 二 ㄴ 第 七 ヲ 乙 與 七 共住 ッ 3 ㄴ ㄴ ノ ㄴ <유가26:12-14> (말하자면 긴
밤에 자주 익혀서 그와 더불어 함께 머무는 증상력으로 (말미암아 그러)하
고, 혹 또한 즐겨 두 번째 사람과 더불어 함께 머물고 하며 하는,)
- ㄹ. A: 亦[33(·)]應如是[24(·),23(1)]推求請問第三[25(·),**33(1)**,11(·)]第五第六第七
第八第九第十[25(·),**33(1)**,11(·),25(1)]地[25(·)] <주본화엄34, 17:01-03>
B: 亦(ㄴ) 1 是 如 ㄴ 3 三 第 七 ヲ ㄴ 四 第 七 ヲ ㄴ 五 第 (七 ヲ ㄴ)
六 第 (七 ヲ ㄴ) 七 第 (七 ヲ ㄴ) 八 第 (七 ヲ ㄴ) 九 第 (七 ヲ ㄴ)
十 第 七 ヲ ㄴ (ノ) ㄴ 七 地 七
C: 또한 이와 같이 셋째 것이니 넷째 것이니 다섯째 것이니 여섯째 것이니
일곱째 것이니 여덟째 것이니 아홉째 것이니 열 번째 것이니 하는 地位의
- ㄱ. A: 通慧[51(·)]者[23~33(·)]謂第六[**33(1)**,34(·),54~55(·)]<유가08, 17:16-17>
B: 通慧(ㄴ) 1 {者} ㄴ 1 六 第 (七 ヲ) ㄴ 乙 謂 ㄴ ㄴ
C: 通慧라 하는 것은 여섯 번째의 것을 말하며,

- (20ㄱ, ㄴ)에서 ‘七ヲ’는 숫자 뒤에 바로 붙어 나타난다. 이러한 예로 미루어 보았을 때 (20ㄷ-ㄱ)에서 ‘第七ヲ’의 ‘第’는 부독자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 十八七ヲ ㄴ 1

- ‘七ヲ’와 ‘1’ 사이에 정체를 알기 어려운 ‘ㄴ’가 개재하였다. ‘ㄴ’는 거의 모든 예에서 연
결어미로 쓰인다. 이전에 관련 공부모임에서 이에 대해 논의하며 첫째로 중세국어의 ‘-
으란’과 관련되었을 가능성, 둘째로는 ‘-으란’과 별개의 요소로, ‘ㄴ’처럼 명사성을 가진
요소로 쓰였을 가능성이 언급된 바 있다.
- <금광>에 조사 사이에 ‘ㄴ’가 개재한 ‘乙 ㄴ ㄴ’의 예가 하나 보이고(21), 다른 예에서 이
와 유사한 ‘乙 ㄴ ㄴ’<화엄14:18_19>가 확인된다. 박진호(2015:392-393)에서는 (21)의
‘ㄴ’는 ‘ㄴ’이 중복 반영된 것이라고 하였다.

- (21) 諸 聽衆 乙 ㄴ ㄴ 安隱 快樂 ッ {令} ㄴ ㄴ ㄴ ㄴ ㄴ ㄴ ㄴ ㄴ <금광15:07_2>
모든 聽衆으로 하여금도 安隱하고 快樂하게 하고자 할 것이며,

• 慈忍ヶ刀, 片ヶセ

- <자비>에는 단위 명사 ‘ヶ’ 뒤에 조사가 결합한 ‘ヶ刀’, ‘ヶセ’이 쓰인다.
- ‘ヶ’는 “정도”를 뜻하며 ‘만큼’과 대응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예를 보면 ‘만큼’이 갖는 의미와 구분되는 지점들이 있다.
- 첫째 ‘ヶ’는 “일부분”, “소량”을 나타내는 예문에서 쓰이는 강한 경향성을 보인다.
- 둘째로 ‘ヶ’는 배분적 의미를 갖는다.
- ‘ヶ’는 ‘몇’ 뒤에 오는 경우가 있는데, ‘ヶ’가 단위명사로서 가산성을 가짐을 보여 준다.

(22) 過去に幾ヶセ如來有テ般涅槃シテ幾ヶセ聲聞辟支佛も般涅槃シテ
 <화소07:16-17> (과거에 얼마만큼의 여래가 계시어 般涅槃하시며, 얼마만큼의 성문 벽지불이 般涅槃하며,)

- ‘ヶ’는 ‘하나의 NP도 없다’ 구문에서 NP 뒤에 붙는 경우가 잦다.

(23) 曾ハテ得テ毫末許ヶ如シモ衆生も饒益シテ而ハ獲テ善利モ
 {有}ナリ未リトナリ <화소10:09-10> (조금도 능히 털끝만큼 같은 것도 중생을 이롭게 하여 얻은 善利를 가지지 않았다.)

ㄴ. 今セ我ニ{此}ニ身一後ニ當必死シトナリ一利益ノケ刀無セ
 <화소11:03> (‘지금 나의 이 몸은 뒤에라도 필히 죽는다면 한 이익될 만큼도 없을 것이다.)

ㄷ. 亦一ニ心ニ一念セ悔惜ノケ刀生リテ不ツナリ <화소16:02-03> 또한 마음에 한 念의 悔惜함도 내지 아니하며

ㄹ. {是}ニ觀ニ作ツテ已シトナリ一ニ念セ愛著ノケ刀心ニ生リテ不ツ
 <화소16:09-10> 이 觀을 作함을 이미 하고서는 한 念의 愛著하는 마음도 내지 아니하며

ㄱ. 少セ一法ヶ刀得テ成立シテ可セ一無ニ入テ{有}知ナリ <화소
 18:14-15> 적은 법만큼도 능히 成立할 수 없는 것을 아는 것이다.

ㄴ. 世尊一佛眼ニ故一法相ヶ刀見テ無ニ <금광13:05-06> (世尊은 佛眼으로 한 법의 모습만큼도 봄이 없으시며)

ㄷ. 能一法ヶ刀生リテ不ツ亦一法ヶ刀滅テ不ツニ <금광
 13:06-07> (능히 법만큼도 生하지 않고 또 한 법만큼도 滅하지 않고 하시어)

ㄹ. 世尊無邊身一言字ヶ刀說テ不ツニ <금광13:10-11>
 世尊의 無邊身은 하나의 言字만큼도 說하지 않으시나

ㅈ. 是事一以入ニ故一我{於}罪人ニ片ヶセ慈心刀無セ <자비
 21:15-17>

(이러한 일을 말미암은 까닭으로 나는 죄인에게 조각만큼의 자비심도 없고)

ㅊ. 有セ一主リ牛頭阿傍ニ其性ニ兇虐シ一慈忍ヶ刀無ニ <자
 비 20:21-21:01>

(있다, 한 옥주(獄主)인 우두(牛頭) 아방(阿傍)이. 그 성질이 흉악하여 한 자비심이나 인욕만큼도 없으니)

- 아니면 ‘일부분’에 붙는다.

(24) ㄱ. 彼 諸 1 功德 1 量 3 3 可 7 1 不 矣 1 乙 我 1 今 1 力 乙 隨 3 少 分 1 今 乙 說 3 尸 ム <화엄09:02-03> (저 모든 功德은 헤아릴 수 없거늘 나는 지금 힘을 좇아 일부분을 이르기를)

ㄴ. {是} 1 如 3 邊 尸 無 1 大 功德 乙 我 1 今 1 {於} 中 3 十 3 3 少 分 1 今 乙 說 3 尸 ム <화엄09:08> (이와 같이 가 없는 큰 功德을 나는 지금 일부분을 이르되)

- 아니면 배분적인 의미로 쓰인다.

(25) ㄱ. 若 諸 有 智 1 同 梵 行 者 1 見 聞 疑 乙 由 3 或 其 罪 乙 舉 3 3 或 憶 念 3 {令} 1 3 或 隨 學 3 {令} 1 3 3 1 {於} 所 1 時 十 譏 論 乙 堪 忍 3 3 3 <유가 06:22-07:02>

(만약 여러 지혜 있는 동료 수행자[同梵行者]가 보고 들은 의문[見聞疑]으로 말미암아 혹 그 죄를 들추고, 혹 기억하게 하고, 혹 따라 배우게 하고 하면(/따라 배우게 하고 하는), 이러한 경우의 때에 나무라는 의논[譏論]을 받아들여 인정[堪忍]하고 하며,)

ㄴ. 又 卽 3 是 如 3 1 所 對 治 法 乙 能 治 乙 白 法 3 十 還 3 所 1 有 1 十 <유가 10:13-14>

(또 곧 이와 같은 대치해야 할 법[所對治法]의 능히 대치하는 백법[能治白法]에 도로 그만한 것이 있으니,)

- (25ㄱ)는 ‘죄를 들추고’, ‘기억하게 하고’, ‘따라 배우게 하’는 각각의 모든 상황마다 의논을 받아들여 인정해야 한다는 맥락인데, 이때 ‘1’은 각각의 모든 상황을 지시하는 ‘所’ 뒤에 붙었다.

- (25ㄴ)에서도 어떠한 법들에 능히 대치할 수 있는 그만큼의 양이 있다는 것인데, 이는 각 법마다 대치할 수 있는 각각의 법이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 이렇게 (23~24)처럼 “전체에 속한 부분”을 나타내는 의미에서 (25)와 같은 배분적 의미로 나아가고, 이로부터 ‘-마다’가 파생될 수 있었던 듯하다.

- 전체에 속한 부분으로서 양적 특성이 부각되고 질적 특성이 가려지면서 “정도”, “만큼” 같은 어림수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 같다.

• 物 乙 1

- ‘物 乙’은 이병기(2014:51)에서 ‘것/갓’으로 읽었다. sktot 번역에도 대체로 ‘것’으로 되어 있다.

3.2.2. 부사류

• 及 1, 及 乙 1

- ‘미치’ 정도로 읽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 김성주(2016:57): ‘及’은 『자비도량참법』 이외의 다른 석독구결에는 ‘及 乙’으로 현토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及ㄷ’은 접속부사로 처리된다. 그런데 기림사본 『자비도량참법』의 현토자는 ‘及’에도 ‘ㄷㄷ’을 현토하였다. ‘及ㄷㄷ’의 ‘ㄷㄷ’은 좌토로 현토되었으므로 ‘及’은 동사로 해석된 것이 틀림없다.

- 김성주(2016)에서는 ‘及’을 문맥상 접속부사로 처리해야 하는데 동사로 처리한 것은 <자비> 현토자의 잘못이라고 하였다.

• 如[及]ㄷ



(26) <자비19:16-18>

A: 與維陀始王共戰 兵力不如 因立誓願

B: 維陀始王乙 與ㄷㄷㄷ 共ㄷ 戰ㄷ 1 ㄷ 兵ㄷ 力ㄷ 如[及]ㄷ 不ㄷㄷㄷㄷ 1 因ㄷ 誓願
乙 立ㄷㄷㄷ

C: 유타시왕(維陀始王)을 더 불어서 함께 싸우되 병사의 힘이 미치지 못하게 된 것을 인하여 서원을 세우기를,

- ‘如’를 ‘及ㄷ’으로 대체하여 읽으라는 표시로 보이는데, 현재 sktot에서는 마치 ‘如’에 ‘ㄷ’이 현토된 것처럼 보여 수정이 필요하다.

• 復 1, 亦 1

- ‘復 1’과 ‘亦 1’는 <자비>에서만 등장한다. 다른 자료에서는 늘 ‘復ㄷ 1’, ‘亦ㄷ 1’으로 나타난다. 이들은 대체로 ‘또한’으로 읽는다. 이에 따라 ‘復 1’과 ‘亦 1’ 역시 ‘또한’으로 읽는 것으로 생각하여 ‘復[1 Et.]’과 ‘亦[1 Et.]’로 주석을 달았다.

• 相ㄷ

- ‘相’에 ‘ㄷ’이 현토된 예는 자토석독구결 자료를 통틀어서 <자비>에만 한 예가 존재한다.

(27) <자비19:13-14>

A: 楚毒無量 相與披覽 具見其事

B: 楚毒 1 量 無ㄷ 1 乙 相ㄷ 與ㄷ 披覽ㄷ 具ㄷ 其 事ㄷ 見ㄷㄷㄷㄷ 1

C: 고통은 한량없거늘 서로 함께 (경전을) 펼쳐 읽어 고루 그 일을 보아야 한다.

- ‘相’이 부사로 쓰일 때는 ‘ㄷ’, ‘ㄴ’처럼 ‘오’를 나타내는 자와 함께 쓰여 잠정적으로나마 ‘서르(서로)’ 정도를 표기한 것으로 보았으나 ‘ㄷ’이 현토된 위의 예의 경우 어떻게 읽어야 할지 알기 어렵다. 뒤에 이어지는 ‘與ㄷ’과 같은 ‘다뭇’을 표기한 것일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 昔ㄷ

- 정재영(1998:163): 넷, 남풍현(1998:279): 뉘
- 이병기(2009:52)에서 ‘ㅍㅍ’가 ‘뉘’ 정도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조사가 결합한 예가 보이지 않아 부사로 볼 수도 있지만 15세기 대응어와 의미를 고려하여 명사로 분류하였다고 하였다.
- sktot에서는 <금광>, <유가>에 보이는 세 개의 예 모두 ‘ㅍ[ㅍM,]’으로 주석하였다.

3.2.3. 용언류

- 造りゝッナ↑入る

- ‘造’ 뒤에 ‘亠’가 현토된 예가 보이는데, 의미를 함께 고려하면 이는 ‘삼-’을 표기한 것으로 추정된다.

(28) <자비 21:09-10>

A: 懈怠放逸 造諸怨結 如是等人 來此受苦

B: 解怠放逸ッ、諸ノ怨結ニ造^テハッナ^リ入^ル。是如ッ、尸{等}|ッヒセ人^リ此ム
來ッ、ハ苦ニ受^トル、

C: 게으르고 방일(放逸)하여 모든 원결(怨結)을 지으며 한 까닭으로 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 여기에 와서 고통을 받으니

- 懷セッ3

- ‘懷 혼출 회 <光千15b>’(이병기 2017 발제문)
- ‘懷’이 ‘혼ㅈ-’의 혼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ㅈ’ 뒤에 붙는 ‘ㅅ ㅅ’가 남는다는 문제가 있다.

• 擘[波]乙 3

- 허인영(2017 발제문)에서는 ‘擘’이 ‘찢다, 가르다’의 의미인 것을 고려하면 ‘波’로 /버/를 나타내어 ‘ㄴㅂ’와 함께 ‘버려’와 같은 語形을 표상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였다.
- 이홍구(2021 발제문)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중세국어에 등장하는 ‘버을다/병을다’를 고려해 볼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29) <자비|20:06-08>

A: 鐵鉤壁口烱銅灌之

B: 鐵ヲ 鉤ニ 口乙 擘[波]乙ヲ 烱シテ 銅乙 {之}リヲ十 灌口ヲ

C: 쇠의 갈고리로 입을 찢어 녹은 구리를 여기[왕의 입]에 부으면

● 徹七

(30) <자비|20:08-09>

A: 從咽徹下 無不焦爛

B: 咽乙 從セ 徹セ 下ッ 焦爛尸 不ッ尸 丁ノ尸 無セ、

C: 목구멍으로부터 뚫고 내려가 타서 문드러지지 않음이 없으며, 저 모든 대신도 또한 또 이와 같다.”

(31) 透徹 투철홀 투 스뭇찰 철 <1897 한영자전 PART I:543>

- <한영자전>의 석과 의미를 고려하면 중세한국어의 ‘스뭇-’을 후보로 삼을 수 있을 듯하다.
- 남경란(2018:26)에서는 ‘스뭇’으로 읽었는데 ‘스뭇-’ 뒤에 ‘읏’이 덧붙는 이유를 알기 어렵다.

• 忍耐 ㄴㄹㄴㄹ ㄴㄹㄴㄹ

(32) <자비21:11-12>

A: 此中劇苦 非可忍耐

B: 此 中ㄴㄹ 劇苦 ㄴㄹ 忍耐 ㄴㄹㄴㄹ ㄴㄹㄴㄹ 可ㄴㄹ 非 矣 ㄴㄹ

C: “이 안에서의 극심한 고통은 참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늘



- 남경란(2018:12-13)에서는 이를 ‘忍ㄴㄹㄴㄹ 耐ㄴㄹㄴㄹ’으로 분리하여 보았다.
- 이병기(2017 발제문): 耐 오른쪽 위에 ‘ㄴㄹ’이 ‘ㄴㄹㄴㄹ’ 위로 연결된 듯하게 써 있는데 이는 ‘耐’의 한자음을 표시한 것으로 판단된다. 왜 이러한 표시가 필요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
- 위치상으로는 ‘耐’에 현토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나 sktot에서도 ‘ㄴㄹ’을 ‘耐’의 한자음으로 보고 ‘耐’ 뒤에 현토된 것으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된다.

• 俄ㄴㄹㄴㄹ

(33) <자비21:12-14>

A: 今日得出 俄頃復還 展轉輪迴 不知痛苦

B: 今日ㄴㄹ 得ㄴㄹ 出ㄴㄹ 俄ㄴㄹㄴㄹ 頃ㄴㄹ 復ㄴㄹ 還ㄴㄹ 展轉輪迴ㄴㄹ 痛苦ㄴㄹ ㄴㄹ 知ㄴㄹ 不ㄴㄹㄴ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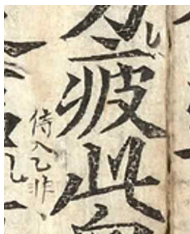
C: 오늘에 능히 나가게 된 이가 잠깐 사이에 다시 도로 거듭 윤회하여서 고통스러운 것을 알지 못하니

(34) ㄴ. 프른 돌히 문듯 돌홀 表히니 (翠石俄雙表) <1481 두시언해 24:56ㄴ>

ㄴ. 이옥고 흔 노인이 이서 슈염과 눈섭이 희고 신당이 칠척이라 (俄有一老人鬚眉皓然身長七尺) <1758 종덕신편언해 상:12ㄴ>

- ‘문듯’과 ‘이속히다’의 ‘이속-’이 후보가 될 수 있을 듯하다.

• 疲[侍]ㄴㄹ[非]



- 이병기(2017 발제문): ‘시들비(←시-+늪-+-이)?’ (참고: 일-, 고달프다, 애달프다(<애늪다), 시다(<식다). 시큰하다, 늪다, 닳다 등)
- sktot에도 이러한 해석이 반영된 것인지 ‘疲[侍]ㄴㄹ[非] 습ㄴㄹ’이 ‘시달리게 하여서’로 번역되었다.

- 勿セナ四ッロトイナ

(35) <자비21:11-12>

A: 汝今得出 勿復更造

B: 汝ナ 今ナ 得ッホ 出ッホナナリ四 復[甲] 更ッ 造尸 勿セナ四ッロトイナ

C: 너는 이제 능히 나가는 것이라서 또 다시 (죄를) 짓지 말라.” 하여도

- 석독구결자료에서 드물게 종결어미 ‘ㄴ’이 쓰인 것으로 보인다. ‘말다’가 쓰일 자리이지만 ‘ㄴ’이 있으므로 부정의 의미를 갖는 ‘못’ 정도와 대응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3.2.4. 기타

- 復[甲]



- 남경란(2018:24)에서는 ‘復[甲]尸’<화소11:12-13> 의 예를 들어 이를 ‘갑절’로 읽었으나 의미가 맥락에 맞지 않는다.

(36) <자비19:01-03>

A: 畢竟不復 入於三途 畢竟不復 墮於地獄 畢竟不復 為十惡業 造五逆罪 受諸苦惱

B: 畢竟 復[甲] {於}三途ヲ 入尸 不ッ、畢竟 復[甲] {於}地獄ヲ 墮尸 不ッ、畢竟 復[甲] 十惡セ 業乙 為ッ 五逆セ 罪乙 造ッッロハ 諸ナ 苦惱乙 受尸 不ッリセィ
ッロノホセ

C: 畢竟 다시 三途에 들어가지 않으며畢竟 다시 地獄에 떨어지지 않으며 畢竟 다시 十惡의 業을 삼고[짓고] 五逆의 罪를 짓고 하여서 모든 苦惱를 받지 않게 하고자 한다.

- 此ム

(37) <자비21:09-10>

A: 如是等人 來此受苦

B: 是 如ッ尸 {等}ナ 人ナ 此ム 來ッッホ 苦乙 受トナ

C: 이 같은 부류의 사람이 여기에 와서 고통을 받으니

- ‘此’에 ‘ム’가 현토된 이유를 알기 어렵다. ‘*이고딕(이 곧+익)’의 ‘딕’을 표기한 것일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을지?

참고문헌

- 김부림(1999), 구역인왕경 구결의 종합적 검토 - 고려 시대 구결 한자음의 연구, 구결연구 5, 75-108.
- 김성주(2016), 석독구결 자료 기림사본 『자비도량참법』의 원문 검토와 특징적인 현토 양상 고찰, 구결연구 37, 39-66.
- 남권熙(1997), 차자 표기 자료의 서지, 새국어생활 7(4), 147-194.
- 남권희·남경란(2016), 13세기 고려 석독구결본 『자비도량참법』 권4 잔편의 구결 소개, 국어사연구 22, 199-250.
- 남경란(2018), 새 자료, 고려본 『자비도량참법』의 석독 구결 분석 및 음독 구결과의 상관성 비교 연구, 어문학 140, 1-33.
- 남풍현(1985), 舊譯仁王經 釋讀口訣의 年代, 동양학 15,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19-40.
- 남풍현(1996),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동명사어미 ‘-ㄱ/ㄴ’에 대한 고찰, 국어학 28, 1-48.
- 남풍현(1998), 특집호: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표기법에 대한 연구; 『유가사지론(瑜伽師地論)』(권20)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253-336.
- 남풍현·심재기(1976), 구역인왕경의 구결연구(其一), 동양학 6, 1-68.
- 문현수(2019), 석독구결의 능력부정에 대한 연구 - ‘{不}’의 특성과 장형 능력 부정 구문의 어순을 중심으로 -, 국어사연구, 28, 269-298
- 문현수(2020), 《구역인왕경》과 《자비도량참법》의 석독구결 현토 양상에 대하여, 국어학(國語學) 93, 123-155.
- 박성종(1999), 구역인왕경 구결의 종합적 검토: 구역인왕경 구결의 어휘, 구결연구 5, 201-220.
- 박진호(1998), 고대 국어 문법, 국어의 시대별 변천 연구 3: 고대 국어, 국립국어연구원, 121-205.
- 박진호(2008), 향가 해독과 국어 문법사, 국어학 51, 313-338.
- 박진호(2015), 보조사의 역사적 연구, 국어학 73, 375-435.
- 박진호(2016), 문법, 신라의 언어와 문학,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129-159.
- 성우철(2025), 자토석독구결 자료 『화엄경』 권14의 표기와 어휘, 구결학회 월례강독회 발표자료.
- 심재기(1975), 舊譯仁王經上 口訣에 대하여, 미술자료 18, 국립중앙박물관.
- 심재기·이승재(1998), 『화엄경』 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轉寫), 구결연구 3, 29-111.
- 안대현(2009), 고대국어의 ‘ㅅ’와 중세국어의 ‘치’, 구결학회 제38회 전국학술대회 발표논문집.
- 이병기(2014), 구결 자료의 어휘, 구결연구 33, 23-61.
- 이병기(2017), 「祇林寺本 『慈悲道場懺法』 卷4 (20:21-21:21) 강독」, 『『慈悲道場懺法』講讀 資料集』, 44-52.
- 이흥구(2021), 자비도량참법 권4 1918-2010, 현인마루 구결강독모임 발제문.
- 장경준(2006), 석독구결의 구결자 ‘ㅅ’과 ‘ㅆ’에 대하여, 국어학 47, 265-287.
- 장경준, 오민석, 문현수, 허인영(2015), 『유가사지론』 권20의 석독구결 역주, 역락.
- 장고은(2013), 高麗時代 字吐釋讀口訣의 口訣字 ‘ㅅ’, ‘ㅆ’의 分布와 機能, 한국어문교육연구회 194회 전국 학술대회 논문집, 93-102.

- 장윤희(2004), 석독구결 및 그 자료의 개관, 구결연구 12, 47-80.
- 장윤희(2006). 고대국어의 파생 접미사 연구. 국어학, 47, 91-144.
- 정재영(1998), 특집호: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표기법에 대한 연구; 합부금광명경(合部金光明經)(권삼(卷三))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113-193.
- 정재영·남성우(1998), 특집호: 고려시대 석독구결의 표기법에 대한 연구; 구역인왕경 석독구결의 표기법과 한글 전사, 구결연구 3, 195-251.
- 황선엽·이전경·하귀녀 외(2009), 석독구결사전, 박문사.
- 허인영(2017), 「祇林寺本 『慈悲道場懺法』 卷4 (19:03-20:21) 강독」, 『『慈悲道場懺法』 講讀 資料集』, 36-43.

[부록1-1] 『구역인왕경 권상』 구결자 빈도 표

번호	구결자	V	Ep	Ec	Ef	Et	N	J	M	R	V+Ep	Et+N	N+V	N+J	R+V	R+Ec	합계
1	ㄱ	0	6	0	0	0	0	0	0	2	0	0	0	0	0	0	8
2	ㄴ	0	46	0	0	0	0	0	0	0	0	0	0	0	0	0	46
3	ㄷ	0	27	7	1	0	0	1	0	0	0	0	0	0	0	0	36
4	ㄹ	0	0	5	0	0	0	0	0	0	0	0	0	0	0	0	5
5	ㄴ	0	0	2	0	0	0	22	0	0	0	0	0	0	0	0	24
6	ㄷ	0	0	0	0	0	0	17	3	0	0	0	0	0	0	0	20
7	ㅅ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4
8	ㅅ	0	0	0	0	0	0	3	9	31	0	0	0	0	0	0	43
9	ㅅ	0	0	2	0	0	0	0	0	0	0	0	0	0	0	0	2
10	ㅅ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11	ㅅ	0	19	0	0	0	0	0	0	0	0	0	0	0	0	0	19
12	ㅅ	0	20	0	0	30	0	0	0	0	0	0	0	0	0	0	50
13	ㅅ	0	0	1	0	191	0	87	0	2	0	0	0	0	0	0	281
14	ㅅ	0	0	0	2	0	0	0	0	0	0	0	0	0	0	0	2
15	ㅅ	0	0	9	0	0	0	0	0	0	0	0	0	0	0	0	9
16	ㅅ	0	0	5	0	0	0	0	0	0	0	0	0	0	0	0	5
17	ㅅ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18	ㅅ	18	2	0	50	0	0	0	0	0	0	0	0	0	0	0	70
19	ㅅ	0	0	0	0	0	0	18	0	0	0	0	0	0	0	0	18
20	ㅅ	0	0	0	0	0	0	0	1	7	0	0	1	2	13	0	24
21	ㅅ	0	0	0	0	0	42	0	0	0	0	0	0	0	0	0	42
22	ㅅ	0	0	0	0	0	0	0	3	0	0	0	0	0	0	0	3
23	ㅅ	0	0	13	0	0	0	0	0	0	0	0	0	0	0	0	13
24	ㅅ	0	0	0	0	0	0	36	0	8	0	0	0	0	0	0	44
25	ㅅ	0	0	0	0	0	0	0	0	0	0	33	0	0	0	0	33
26	ㅅ	0	9	0	0	0	0	0	0	0	0	9	0	0	0	0	18
27	ㅅ	0	0	0	0	45	0	0	0	0	0	0	0	0	0	0	45
28	ㅅ	0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29	ㅅ	0	0	3	0	0	0	0	0	0	0	0	0	0	0	0	3
30	ㅅ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31	ㅅ	0	0	0	0	0	0	119	0	5	0	0	0	0	0	0	124
32	ㅅ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33	ㅅ	0	0	96	0	0	0	0	2	0	0	0	0	0	0	0	98
34	ㅅ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3
35	ㅅ	0	8	0	0	0	0	0	1	0	0	0	0	0	0	0	9

36	市七	0	6	0	0	0	0	0	0	0	0	0	0	0	0	0	6
37	火	0	0	0	0	0	0	3	0	0	0	0	0	0	0	0	3
38	巴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2
39	彡	7	0	0	0	0	0	5	3	9	0	0	0	0	0	0	24
40	彡市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41	彡火七	0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42	二	0	115	0	0	0	0	0	0	0	0	0	0	0	0	0	115
43	白	0	23	0	0	0	0	0	0	0	0	0	0	0	0	0	23
44	七	44	8	0	0	0	0	95	24	18	0	0	0	0	0	0	189
45	七彡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1
46	彡	3	6	50	2	0	4	4	1	0	0	0	0	0	0	0	70
47	彡七	0	3	0	0	0	0	13	0	0	0	0	0	0	0	0	16
48	彡十	0	0	0	0	0	0	52	0	0	0	0	0	0	0	0	52
49	彡+ヶ	0	0	0	0	0	0	1	0	0	0	0	0	0	0	0	1
50	ゝ	0	0	0	0	0	0	95	2	24	0	0	0	0	0	0	121
51	り	1	38	2	0	0	0	3	11	3	0	0	0	0	0	0	58
52	千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53	ヲ	0	0	0	0	0	3	12	10	0	0	0	0	0	0	0	25
54	ヲ十	0	0	0	0	0	0	8	0	0	0	0	0	0	0	0	8
55	川	116	0	0	0	0	0	9	35	26	1	0	0	0	0	0	187
56	𠂇	0	0	0	0	0	1	0	0	0	0	0	0	0	0	0	1
57	𠂇	0	0	51	0	0	0	0	0	0	0	0	0	0	0	0	51
58	之七	0	0	0	0	0	0	0	4	0	0	0	0	0	0	0	4
59	下	0	0	0	0	0	0	5	0	0	0	0	0	0	0	12	17
60	ノ	0	0	0	0	0	0	0	0	10	68	0	0	0	0	0	78
61	𠂇	0	0	0	0	0	0	0	5	0	0	0	0	0	0	0	5
62	ッ	289	0	0	0	0	0	0	0	4	0	0	0	0	0	0	293
63	ッ 丿	0	0	0	0	0	0	1	5	0	0	0	0	0	0	0	6
64	十	0	0	0	0	0	0	21	0	0	0	0	0	0	0	0	21
65	𠂇	0	0	0	0	0	0	0	0	3	0	0	0	0	0	0	3

[부록1-2] 『자비도량참법』 구결자 빈도 표

번호	구결자	V	Ep	Ec	Ef	Et	N	J	M	R	V+Ep	Et+N	N+J	R+V	R+Ec	합계
1	ㄸ	0	3	1	0	0	0	2	0	1	0	0	0	0	0	7
2	ㄴ	0	18	0	0	0	0	0	0	1	0	0	0	0	0	19
3	ㄹ	0	28	7	0	0	0	0	0	0	0	0	0	0	0	35
4	ㄹ ㄷ	0	2	3	0	0	0	0	0	0	0	0	0	0	0	5
5	ㄹ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6	ㄹ	0	0	0	0	0	0	19	0	0	0	0	0	0	0	19
7	ㄹ	1	0	0	0	0	0	18	2	7	0	0	0	0	0	28
8	ㄹ	0	0	1	0	0	1	0	0	0	0	0	0	0	0	2
9	ㄹ	0	18	0	0	0	0	0	0	0	0	0	0	0	0	18
10	ㄹ	0	1	0	0	7	0	0	0	0	0	0	0	0	0	8
11	ㄹ	0	1	2	0	108	5	41	3	4	0	0	0	0	0	164
12	ㄹ ㄷ	0	0	0	4	0	0	0	0	0	0	0	0	0	0	4
13	ㄹ ㄹ	0	0	3	0	0	0	0	0	0	0	0	0	0	0	3
14	ㄹ ㄷ	0	0	4	0	0	0	0	0	0	0	0	0	0	0	4
15	ㄹ	3	1	0	21	0	2	0	1	0	0	0	0	0	0	28
16	ㄹ	1	0	0	0	0	0	0	3	1	0	0	0	0	0	5
17	ㄹ	0	0	0	0	0	0	5	3	0	0	0	0	0	0	8
18	ㄹ	2	0	0	0	0	0	1	0	0	0	0	0	0	0	3
19	ㄹ	0	0	0	0	0	0	0	0	0	0	0	1	4	0	5
20	ㄹ	0	0	0	0	0	23	0	0	0	0	0	0	0	0	23
21	ㄹ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22	ㄹ	2	0	0	0	0	0	0	0	0	0	0	0	0	0	2
23	ㄹ	0	0	3	2	0	0	0	0	1	0	0	0	0	0	6
24	ㄹ	0	0	0	0	0	0	9	0	2	0	0	0	0	0	11
25	ㄹ	0	0	0	0	0	0	0	0	0	0	15	0	0	0	15
26	ㄹ	0	17	0	0	0	0	0	0	0	0	1	0	0	0	18
27	ㄹ	0	0	0	0	26	1	1	1	2	0	0	0	0	0	31
28	ㄹ ㄷ	0	0	0	5	0	0	0	0	0	0	0	0	0	0	5
29	ㄹ ㄹ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30	ㄹ	0	0	0	0	0	0	104	0	6	0	0	0	0	0	110
31	ㄹ ㄹ	0	0	0	0	0	0	3	0	0	0	0	0	0	0	3
32	ㄹ	0	0	0	0	0	2	0	0	0	0	0	0	0	0	2

33	个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34	毛	0	0	0	0	0	0	0	0	3	0	0	0	0	0	3
35	勿	0	0	0	0	0	0	0	0	1	0	0	0	0	0	1
36	市	4	6	0	0	0	1	0	0	1	0	0	0	0	0	12
37	市七	0	6	0	0	0	0	0	0	0	0	0	0	0	0	6
38	シ	0	0	0	0	0	0	2	1	3	0	0	0	0	0	6
39	シ市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40	立	0	0	0	2	0	0	0	0	0	0	0	0	0	0	2
41	二	0	18	0	0	0	0	0	0	0	0	0	0	0	0	18
42	白	0	8	0	0	0	0	0	0	0	0	0	0	0	0	8
43	七	5	6	0	0	0	2	65	16	8	0	0	0	0	0	102
44	七市	0	0	0	0	0	0	0	1	0	0	0	0	0	0	1
45	七イ	0	0	2	0	0	0	0	0	0	0	0	0	0	0	2
46	フ	0	3	39	0	0	0	0	4	1	0	0	0	0	0	47
47	フ七	0	0	0	0	0	0	11	0	0	0	0	0	0	0	11
48	フ十	0	0	0	0	0	0	28	0	0	0	0	0	0	0	28
49	ム	0	0	0	0	0	0	7	0	1	0	0	0	0	0	8
50	ミ	0	0	0	0	0	0	80	2	19	0	0	0	0	0	101
51	ヲ	0	0	0	0	0	0	16	0	0	0	0	0	0	0	16
52	ヲ七	0	0	0	0	0	0	3	0	0	0	0	0	0	0	3
53	ヲ十	0	0	0	0	0	0	9	0	0	0	0	0	0	0	9
54	ヽ	0	0	61	0	0	0	0	0	0	0	0	0	0	0	61
55	川	41	0	0	0	0	5	16	12	4	0	0	0	0	0	78
56	即	1	0	0	0	0	0	0	0	0	0	0	0	0	0	1
57	畚	0	0	7	0	0	0	0	0	0	0	0	0	0	0	7
58	下	0	0	0	0	0	0	2	0	0	0	0	0	0	4	6
59	ノ	0	1	0	0	0	0	0	0	1	51	0	0	0	0	53
60	ハ	2	24	0	0	0	0	0	1	1	0	0	0	0	0	28
61	号	0	0	0	0	0	0	0	3	0	0	0	0	0	0	3
62	ソ	131	0	0	0	0	0	0	0	0	0	0	0	0	0	131
63	十	0	0	0	0	0	0	1	0	0	0	0	0	0	0	1
64	子	0	0	0	0	0	17	0	0	0	0	0	0	0	0	17

[부록2] 석독구결 구결자 사용 빈도표

석독구결 자료 5종의 문헌별 구결자 사용 빈도 - 독음순 배열

번호	자형	추정독음	<화소>	<화엄>	<구인>	<금광>	<유가>	<자비>	총계
1	ハ	ㄱ/기	77	74	43	36	161	28	419
2	甲	?(갑)	1	0	0	0	0	5	6
3	𪛗	거	26	92	8	24	27	7	184
4	ナ	겨	154	134	46	74	80	19	507
5	口	고	89	47	41	50	78	40	345
6	𪛖	곰	51	164	20	57	125	19	436
7	人	과	47	12	24	21	182	1	287
8	斤	근	0	1	0	0	32	0	33
9	十	괴	120	260	82	98	407	38	1005
10	印	?(곤)	0	1	0	0	0	1	2
11	𪛙	?(곶)	0	4	4	0	0	0	8
12	ㄱ	ㄴ/은	473	698	309	358	1027	175	3040
13	乃	나	8	2	2	7	21	2	42
14	乂	노	1	4	1	2	2	0	10
15	卜	누	5	18	19	33	11	18	104
16	匕	니	1	4	0	0	0	0	5
17	ㄷ	느	19	340	50	26	30	8	473
18	丨	다	136	135	72	85	287	29	744
19	之	?(다)	2	1	4	1	1	0	9
20	彳	더	3	5	2	4	0	2	16
21	丁	더	32	12	3	9	85	9	150
22	刀	도	30	29	18	27	3	8	115
23	斗	두	9	5	0	1	78	3	96
24	矢	디	44	62	24	35	66	5	236
25	入	ㄷ	108	184	42	105	294	23	756
26	巴	?(ㄷ로)	0	0	2	0	0	0	2
27	冬	들	3	3	3	30	36	0	75
28	ム	딕	24	47	12	30	26	5	144
29	乙	ㄷ/을	307	718	129	333	815	117	2419
30	尸	ㄷ/을	262	346	50	233	363	37	1291
31	四	라	9	10	13	19	27	6	84
32	ㄴ	로	70	57	44	96	246	14	527
33	令	리	94	90	33	19	147	16	399
34	𪛖	리	70	123	18	71	108	18	408
35	市	ㄷ/음	42	47	18	41	71	20	239
36	个	마	15	7	2	4	2	3	33

37	毛	?(모)	0	0	3	0	0	3	6
38	𐄀	며	172	241	98	190	293	0	994
39	ㄴ	며	0	0	0	0	0	51	51
39	勿	믈	5	0	0	0	0	1	6
40	邑	?(曰)	1	0	0	0	2	0	3
41	捨	ㅂ리	1	0	0	0	0	0	1
42	火	ㅂ/ㅅ	1	5	1	3	0	0	10
43	心	ㅅ	0	0	3	0	0	0	3
44	乚	ㅅ	338	384	217	166	500	131	1736
45	ㄷ	사/삼	44	44	28	15	150	13	294
46	三	삼	14	0	0	0	0	0	14
47	一	?(삼/일)	0	0	0	2	3	0	5
48	立	셔	7	141	0	0	0	2	150
49	𐄀	시	44	33	0	0	0	0	77
50	二	시	0	4	115	77	5	18	219
51	白	습	4	28	23	29	9	8	101
52	ㄴ	아	261	520	139	270	625	86	1901
53	ㄴ	여	247	205	122	0	0	101	675
54	ㄴ	여	0	1	0	195	258	8	462
55	与	?(여)	1	0	0	0	0	0	1
56	ㄴ	오/호	92	133	0	0	110	28	363
57	ㄴ	오	0	0	58	0	0	0	58
58	又	우	4	0	0	0	0	0	4
59	千	우	0	0	1	2	0	0	3
60	ㄴ	의	77	78	33	33	113	28	362
61	川	이	329	312	187	286	459	78	1651
62	弋	익	2	0	0	0	0	0	2
63	成	일	0	0	0	0	1	0	1
64	𐄀	자	0	0	1	0	0	0	1
65	𐄀	저	30	43	51	70	193	7	394
66	子	?(지)	1	0	3	1	1	17	23
67	造	?(짓)	0	1	0	0	0	0	1
68	心	터	24	2	0	0	0	0	26
69	下	하	21	1	17	35	81	6	161
70	ノ	호/오	200	178	78	240	585	53	1334
71	𐄀	히	6	4	5	8	52	3	78
72	支	?(히/디)	49	111	0	31	110	5	306
73	ㄴ	ㅎ	488	782	299	487	1192	131	3379
74	𐄀	흔/근	0	0	0	1	6	0	7
75	𐄀	히	6	8	0	25	17	2	58
76	恨	?	1	0	0	0	0	0	1

	<화소>	<화엄>	<구인>	<금광>	<유가>	<자비>	총계
총계	4,802	6,995	2,620	4,095	9,603	1,456	29,566
백분율(%)	16	24	9	14	33	5	100

석독구결 자료 5종의 문헌별 구결자 사용 빈도 - 독음순 배열
(sktot_2022_09 교감본)

[부록3] 자비도량참법 주석

*강서현, 김진희 입력.

*주석 부분을 제외하고 ‘[]’는 ‘()’로 바꿈.

*붉은색으로 된 부분은 특히 논의 필요.

<C자비17:01> (則 {於}一一) 地獄[3 J-, + - J,] 皆[ㄷ J,] 罪分[ㄷ J,] {有}[+ V, 3 Ep, ㄱ Ec-, ㄷ Ec-, 3 V+Ep, 1 Ep, ㄴ V, ㄹ Ef,]

<C자비17:01-03> 今[3 J-, + - J,]{日} 同[ㄴ M] 現[3 J-, + - J,] 阿鼻地獄 等[1 V, 3 V, 3 J-, ㄷ Ec-] 苦[ㄷ J,] 受[3 V, ㄹ Et+N, ㄷ J,] 一切 衆生[3 J,] 當[3 J-, + - J,] 阿鼻地獄 {等}[1 V, 3 V, (1 Et), 3 J-, ㄷ Ec-] 苦[ㄷ J,] 受[3 V, ㄹ Et+N, ㄷ J,] 一切 衆生[3 J, 3 V+Ep, (1 Et), 3 J,] 為[3 V-, 3 -V, 3 V?, ㄷ Ec,]

<C자비17:03-05> 廣[ㄴ M,] 十方[ㄷ J,] 一切 地獄[3 J-, + - J,] 現[3 -J, + - J,] 受[3 V, 1 Ep, 1 Et, ㄴ N, 3 J,] 當[3 J-, + - J,] 受[3 V, ㄹ Et+N, 3 -J, 3 V+Ep, ㄹ Et+N, ㄷ J,] 無窮無盡[3 V, 1 Et,] 一切 衆生[3 J-, + - J,] 及[ㄴ M,] 等[3 Ec,] 一[ㄴ J,] 痛切[3 V, ㄷ Ec,] 五體投地[3 V, 3 Ec, ㄹ J,] 世間[3 J-, ㄷ Ec-] 大慈悲父[ㄴ V, 3 Ep, 1 Et, ㄷ J,] 歸依[3 V, ㄹ Ep, ㄱ Ec-, ㄷ Ec-, 3 V+Ep, 3 Ep-, ㄷ Ec-, 1 Ef,]

<C자비17:06-12> 南無彌勒佛 南無七佛 … 南無無邊身菩薩 南無觀世音菩薩

<C자비17:13-18> 又[3 V, 1 Et,] 復[ㄹ M,] 十方 盡虛空界[ㄷ J,] 量 無[1 Et,] 形像[ㄴ V, 3 Ep, 1 Et,] 優填王[3 J,] 金像[3 J,] 旃檀像[3 J,] 阿育王[3 J,] 銅像[3 J,] 吳中[3 J-, ㄷ Ec-] 石像[3 J,] 師子國[3 J-, ㄷ Ec-] 玉像[3 J,] 諸國土[ㄷ J,] 中[3 J-, ㄷ Ec-] 金像[3 J,] 銀像[3 J,] 瑠璃像[3 J,] 珊瑚像[3 J,] 琥珀像[3 J,] 磲磬像[3 J,] 碼碯像[3 J,] 真珠像[3 J,] 摩尼寶像[3 J,] 紫磨上色閻浮檀金像[3 J, 3 V+Ep, ㄹ Et+N, ㄷ J,] 歸依[3 V, ㄹ Ep, ㄱ Ep, ㄷ R, ㄷ Ec,]

<C자비17:19-18:01> 又[1 Et,] 復[ㄹ M,] 十方[ㄷ J,] 如來[ㄹ J,] 一切 髮塔[3 J,] 一切 齒塔[3 J,] 一切 牙塔[3 J,] 一切 爪塔[3 J,] 一切 頂上骨塔[3 J,] 一切 身中[3 J-, ㄷ Ec-] 諸[1 Et,] 舍利塔[3 J,] 袈裟塔[3 J,] 匙鉢塔[3 J,] 澡瓶塔錫[3 J,] 杖塔[3 J, 3 V+Ep, ㄹ Et,] 是如[3 V, ㄹ Et,] 等[1 V, 3 V, 1 Et,] 佛事[ㄷ J,] 為[ㄹ Ec, 3 V, 3 Ep, 3 Ep, 1 Et, ㄷ J,]{者} 歸命[3 V, ㄹ Ep, ㄱ Ep, ㄷ R, ㄷ Ec,]

<C자비18:02-05> 又 復 諸[1 Et,] 佛生處塔[3 J,] 得道塔[3 J,] 轉法輪塔[3 J,] 般涅槃塔[3 J,] 多寶佛塔[3 J,] 阿育王[3 J,] 造[ㄴ V, 3 Ep, 3 Ep, 1 Et,] 所[ㄷ J,] 八萬四千塔[3 J,] 天上塔[3 J,] 人間塔[3 J,] 龍王[3 J,] 宮中[3 J-, ㄷ Ec-] 一切 寶塔[3 J, 3 V+Ep, ㄹ Et+N, ㄷ J,] 歸命[3 V, ㄹ Ep, ㄱ Ep, ㄷ R, ㄷ Ec,]

<C자비18:05-08> 又[1 Et,] 復[ㄹ M,] 十方 盡虛空界[ㄷ J,] 一切 諸佛[ㄷ J,] 歸依[3 V, ㄹ Ep, ㄷ Ec,] 十方 盡虛空界[ㄷ J,] 一切 尊法[ㄷ J,] 歸依[3 V, ㄹ Ep, ㄷ Ec,] 十方 盡虛空界[ㄷ J,] 一切賢聖[ㄷ J,] 歸依[3 V, ㄹ Ep, ㄱ Ep-, ㄷ Ec-, 3 V+Ep, 3 Ep-, ㄷ Ec-, 1 Ef,]

<C자비18:09-10> 仰願[3 V, ㄹ Ep, ㄱ Ep, ㄹ Et, ㄹ N, 1 J,] 同[ㄴ R,] 慈悲[ㄷ J,] 力[3 J,] 安慰衆生力[3 J,] 無量自在力[3 J,] 量 無[1 Et,] 大神通力[3 J, 3 V+Ep, ㄷ J,] 以[3 Ec, ㄹ J,]

<C자비18:10-12> 今日 道場[3 J-, ㄷ Ec-] 同[ㄴ M,] 阿鼻大地獄[3 J-, + - J,] 苦[ㄷ J,] 受[1 Ep, 1 Et, ㄹ Et, ㄷ J,] 一切 衆生[3 J,] 為[3 V,] 懺悔[3 V+Ep, 1 Ef-, 3 -Ef,]

<C자비18:12-13> 乃[3 J,] 十方[ㄷ J,] 不可說[ㄷ J,] 一切 地獄[ㄷ J,] 衆生[3 J-, + - J] 至

懺悔[ノV+Ep, 1Ef-, 1-Ef,] 父母[ヰJ,] 師長[ヰJ,] 一切 眷屬[ヰJ, ノV+Ep, 1Et+N, 1J-, +J,] 及[ヰM, 1R,] 今日[ヰJ,] 懺悔[ノV+Ep, 1Ef-, 1-Ef, ノV+Ep, 1Et+N, 1J,] 攝受[ノV, 1Ep, 1R+Ec, 1J,]

<C자비18:13-15> 大悲水[1J,] 以[1Ec, 1J,] 今日[1N,] 阿鼻地獄 等[ノV, 1Et, 1V, 1J,] 及[ヰM,] 餘[1Et,] 地獄 等[ノV, 1Et, 1V, 1J, ノV+Ep, 1Et+N, 1J-, 1-J,] 苦[1J,] 現受[1Ep, 1Et,] 一切 衆生[1J,] 罪垢[1J,] 洗除[ノV, 1Ep, 1R+Ec, 1J,] 得[1Ec, 1J,] 清淨 令[1V, 1Ep, 1R, 1Ep, 1Ec,]

<C자비18:15-17> 今日 道場[1J-, 1-J,] 同[1R,] 懺悔[ノV, 1Ep, 1Ep, 1Et, 1J,] 者[1J,] 及[ヰM,] 其 父母[1J,] 師長[1J,] 一切 眷屬[1J, ノV+Ep, 1Et+N, 1J,] 罪垢[1J,] 洗除[ノV, 1Ep, 1R+Ec, 1J,] 得[1J,] 清淨 令[1V, 1Ep, 1R, 1Ep, 1Ec,]

<C자비18:17-18> 又[ノV, 1Et,] 六道 一切 衆生[1J,] 罪垢[1J,] 洗除[ノV, 1Ep, 1R+Ec, 1J,] 道場[1J-, 1-J,] 至[1M, 1R, 1J,] 畢竟 清淨 令[1V, 1Ep, 1R, 1Ep, 1Ef,]

<C자비18:18-19:01> 今日[1J,] 從[1M,] 去[1Et,] 于道場[1J-, 1-J,] 至[1M,] 皆[1M,] 得[1J,] 阿鼻地獄[1J,] 苦[1J,] 及[1M,] 十方盡虛空界[1J,] 不可說不可說 諸[1Et,] 地獄[1J,] 苦[1J, ノV+Ep, 1Et+N, 1J,] 斷除[ノV, 1Ep, 1Ec,]

<C자비19:01-03> 畢竟 復(甲) {於}三途[1J-, 1-J,] 入[1Et,] 不[ノV, 1Ec,] 畢竟 復(甲) {於}地獄[1J,] 墮[1Et,] 不[ノV, 1Ec,] 畢竟 復(甲) 十惡[1J,] 業[1J,] 為[1V, 1Ec,] 五逆[1J,] 罪[1J,] 造[1Ec, 1V, 1Ec, 1J,] 諸[1Et,] 苦惱[1J,] 受[1Et,] 不[ノV, 1V, 1Ec-, 1-Ec, 1V, 1Ep, 1V+Ep, 1Ep-, 1-Ep, 1Ef,]

<C자비19:03-04> 一切 衆[1Et,] 罪[1J,] 願[1N, 1J,] 盡[1Ec,] 消滅[1V, 1V, 1Ep, 1R, 1Ep, 1Ef,]

<C자비19:04-05> 地獄 生[1J,] 捨[ノV, 1Ec, 1J,] 淨土 生[1J,] 得[1Ec,] 地獄[1J,] 命[1J,] 捨[1Ec, 1J,] 智慧[1J,] 命[1J,] 得[1Ec,]

<C자비19:05-07> 地獄 身[1J,] 捨[ノV, 1Ec, 1J,] 金剛 身[1J,] 得[1Ec,] 地獄 苦[1J,] 捨[ノV, 1Ec, 1J,] 涅槃[1J,] 樂[1J,] 得[1Ec,] 地獄 苦[1J,] 念[ノV, 1Ec, 1J,] 菩提心[1J,] 發[ノV, 1Ec,]

<C자비19:07-09> 四等[1J,] 六度[1J, ノV+Ep, 1Et+N, 1J,] 常[1M,] 得[1J,] 現前[ノV, 1Ec,] 四辯[1J,] 六通[1J, ノV+Ep, 1Et+N, 1J,] 意[1J,] 如[1V, 1J,] 自在[1M, 1V, 1Ec,] 智慧[1J,] 具足[ノV, 1Ec, 1J,] 菩薩道[1J,] 行[ノV+Ep, 1Ec-, 1-Ec,] 勇猛精進[ノV, 1Ec, 1J,] 不休不息[ノV, 1Ec,]

<C자비19:07-11> 乃[1R,] 至[1M,] 進修[ノV, 1Ec, 1J,] 十地[1J,] 行[1J,] 滿[ノV, 1Ec,] 金剛心[1J-, 1-J,] 入[ノV, 1Ec, 1J,] 等正覺 成[1Ec, 1V, 1Ec, 1J,] 還[1M,] 十方一切 衆生[1J,] 度[1V, 1Ec- 1-Ec, 1V, 1Ep-, 1-Ep, 1V+Ep, 1Ep-, 1-Ep, 1Ef,]

<C자비19:12-13> 今日 道場 同業 大衆[1J,] 諸[1Et,] 餘[1M,] 地獄[1J-, 1-J,] 雜受[ノV, 1Ep, 1Ep, 1Et,] 苦報[1J,] 復[1Et,] 記[ノV, 1Ep, 1Ep, 1Ep-,] 可[1-Ep, 1V, 1Et,] 不[1R+V, 1Ec,] 是 如[ノV, 1Et,] 名號[1V, 1Ec,]

<C자비19:13-14> 楚毒[1J,] 量 無[1Ep, 1Ec-, 1-Ec,] 相[1R,] 與[1M,] 披覽[ノV, 1Ec,] 具[1V,] 其 事[1J,] 見[1Ec-, 1-Ec, 1V+Ep, 1Ep-, 1-Ep, 1Ef,]

<C자비19:14-16> 經[1J-, 1-J,] 云[1Ep, 1Et,] 閻羅王[1J,] 一念[1J,]{之}惡[1N, 1J-, 1-J,] 便 獄事[1J,] 總[1Ec,] 自[1J,] 身[1J-, 1-J,] 苦[1J,] 受[1Ep, 1Ec-, 1-Ec,] 亦[1Et,] 論[ノV, 1Ep, 1Ep, 1Ep-,] {可}[1-Ep, 1V, 1Et,] 不[1R+V, 1Ep, 1Ep,]

ᄃ Ef,]

<C자비19:16-18> 閻羅大王[1 J,] 昔[2 M,] 毘沙國[2 J,] 王[2 V, 2 Et,]{爲}[2 N, 2 V, 1 Ep, 2 Ep, 1 Et, 2 R,] 維陀始王[2 J,] 與[2 M, 2 V, 2 Ec, 2 J,] 共[2 M,] 戰[2 Ep, 1 Ec-, 2 -Ec,] 兵[2 J,] 力[2 J,] 如(及)[2 M,] 不[2 R, 2 V, 2 Ec, 2 V, 1 Et,] 因[2 V,] 誓願[2 J,] 立[2 V, 2 Ep, 2 Ef-, 2 -Ef,]

<C자비19:18-19> 願[2 N, 1 J,] 我[1 J,] 後生[2 J-, 2 -J,] 地獄[2 J-, 2 -J,] 主[2 V, 2 Et,]{爲}[2 N, 2 V, 2 Ec, 2 J,] 此 罪人[2 J,] 治[2 V, 2 Ep, 2 R, 2 Ep, 2 Ep-, 2 -Ep, 1 Ef, 2 V, 2 Ep, 2 -Ec,] 十八 大臣[2 J,] 及[2 M, 2 J,] 百[1 N,] 萬 衆[2 J, 2 V+Ep, 2 Et+2 N, 2 J,] 皆[2 M,] 悉[2 M,] 同[2 M,] 願[2 J, 2 V, 2 Ep, 1 Ef,]

<자비19:20-20:01> 毘沙王[2 J, 1 Ef, 2 V, 1 Et, 1 J,]{者} 今[2 J,] 閻羅王[2 J,] 是[2 V, 2 Ep, 1 Et, 2 V, 2 -Ec,] 十八 大臣[1 J,] 今[2 J,] 十八 獄[2 J,] 主[2 J,] 是[2 V, 2 Ep, 1 Et, 2 V, 2 -Ec,] 百 萬[2 R,]{之} 衆[1 J,] 今[2 J,] 牛頭阿旁[2 J,] 是[2 V, 2 Ep, 1 Et, 2 R,]

<C자비20:01-02> 而[2 R,] 此 官屬[2 J,] 悉[2 M,] 北方 毘沙門天王[2 J,] 隸[2 Ep, 1 Et, 2 V, 1 Ef, 2 V, 2 Ep, 2 R, 2 -Ep, 2 -Ec,]

<C자비20:02-04> 長阿含經[2 J-, 2 -J,] 云[2 Ep, 2 Et,] 閻羅大王[2 J,] 住[2 V+Ep, 1 Et,] 所[2 J,]{之} 處[1 J,] 閻浮提 南[2 J-, 2 -J,] 金剛山 內[2 J-, 2 -J,] 在[2 V, 1 Et, 2 R,] 王宮[2 J,] 縱廣[1 J,] 六[2 N,] 千[1 N,] 由旬[2 V, 1 Ef, 2 V, 2 Ep, 2 R, 2 -Ep, 2 -Ec,]

<C자비20:04-05> 地獄經[2 J-, 2 -J,] 云[2 Ep, 2 Et,] 地獄[2 J,] 間[2 J-, 2 -J,] 住[2 V+Ep, 2 Et, 2 J,] 宮城[2 J,] 縱廣[1 J,] 三[2 R,] 萬 里[2 V, 1 Et, 2 R,] 銅鐵[2 J,] 成[1 Et,] 所[2 V, 2 -Ec,]

<C자비20:05-06> 晝夜 三時[2 J-, 2 -J,] 大[1 Et] 銅鑊 有[2 V, 1 Et, 2 R,] 中[2 J-, 2 -J,] 烓[2 R,] 銅[2 J,] 滿[2 V, 1 Et, 2 R,] 自然[2 M,] 前[2 J,] 在[2 V, 2 Ep, 1 Et, 2 J,]

<C자비20:06-08> 大[1 Et,] 獄卒 有[2 Ec,] 王[2 J,] 臥[2 Ec, 2 J,] 熱[2 Ep, 1 Et,] 鐵[2 J,] 床[2 J, 2 J,] 上[2 J-, 2 -J,] 鐵[2 J,] 鉤[2 J,] 口[2 J,] 擘(波)[2 R, 2 Ec,] 烓[2 Ep, 1 Et,] 銅[2 J,] {之}[2 N, 2 J-, 2 -J,] 灌[2 Ep, 1 Et,]

<C자비20:08-09> 咽[2 J,] 從[2 M,] 徹[2 R,] 下[2 V, 2 Ec,] 焦爛[2 Et,] 不[2 V, 2 Ef-, 2 -Ef, 2 V+Ep, 2 Et,] 無[2 V, 2 -Ec,] 彼[2 M,] 諸[1 Et,] 大臣[2 J,] 亦[1 Et,] 復[2 M,] 是 如[2 V, 2 V, 2 Ep, 1 Ef,]

<C자비20:09-10> 十八 獄王[2 V, 1 Ef, 2 R, 1 J,] 一[1 J,] 曰[2 R, 1 J,] 迦延[2 J, 2 V+Ep, 2 Ep, 1 Et, 2 J,] 泥犁獄[2 J,] 典[2 -Ec,] 二[2 J, 2 N,] 號[2 J,] 屈尊[2 J, 2 V+Ep, 2 Ep, 1 Et, 2 R,] 刀山獄[2 J,] 典[2 -Ec,]

<C자비20:10-11> 三[2 J, 2 N,] 名[1 J,] 沸壽[2 J, 2 V+Ep, 2 Ep, 1 Et, 2 R,] 沸沙獄[2 J,] 典[2 -Ec,] 四[2 J, 2 N,] 名[1 J,] 沸曲[2 J, 2 V+Ep, 2 Ep, 1 Et, 2 J,] 沸屎獄[2 J,] 典[2 -Ec,]

<C자비20:12-13> 五[2 J, 2 N,] 名[1 N,] 迦世[2 J, 2 V+Ep, 2 Ep, 1 Et, 2 R,] 黑耳獄[2 J,] 典[2 -Ec,] 六[2 J, 2 N,] 名[1 N,] (山+蓋)傜[2 J, 2 V+Ep, 2 Ep, 1 Et, 2 J,] 火車獄[2 J,] 典[2 -Ec,]

<C자비20:13-14> 七[2 J, 2 N,] 名[1 J,] 湯謂[2 J, 2 V+Ep, 2 Ep, 1 Et, 2 J,] 鑊湯獄[2 J,] 典[2 -Ec,] 八[2 J, 2 N,] 名[1 J,] 鐵迦然[2 J, 2 V+Ep, 2 Ep, 1 Et, 2 R,] 鐵床獄[2 J,] 典[2 -Ec,]

<C자비20:14-15> 九[2 J, 2 N,] 名[1 J,] 惡生[2 J, 2 V+Ep, 2 Ep, 1 Et, 2 R,] (山+蓋)山獄[2 J,] 典[2 -Ec,] 十[2 J, 2 N,] 名[1 J,] 寒氷獄[2 J,] 典[2 -Ec,]

<C자비20:15-16> 十一[ㄷJ, ㄱN,] 毘迦[:J, / V+Ep, ㅅEp, 1Et, :R] 剝皮獄[ㄷJ,] 典[\Ec,] 十二[ㄷJ, ㄱN,] 遙頭[-J, / V+Ep, ㅅEp, 1Et, :J,] 畜生獄[ㄷJ,] 典[\Ec,]
 <C자비20:16-17> 十三[ㄷJ, ㄱN,] 提薄[:J, / V+Ep, ㅅEp, 1Et, :R,] 刀兵獄[ㄷJ,] 典[\Ec,] 十四[ㄷJ, ㄱN,] 夷大[-J, / V+Ep, ㅅEp, 1Et, :J,] 鐵磨獄[ㄷJ,] 典[\Ec,]
 <C자비20:18-19> 十五[ㄷJ, ㄱN,] 悅頭[:J, / V+Ep, ㅅEp, 1Et, :R,] 寒氷獄[ㄷJ,] 典[\Ec,] 十六[ㄷJ, ㄱN,] 名[1J,] 穿骨 鐵(ㄴ+丹)獄[ㄷJ,] 典[\Ec,]
 <C자비20:19-20> 十七[ㄷJ, ㄱN, ㅅJ,] 名[1J,] 身[:J, / V+Ep, ㅅEp, :R,] 蛆虫獄[ㄷJ,] 典[\Ec,] 十八[ㄷJ, ㄱN, ㅁR, 1Et,] 觀身[:J, / V+Ep, ㅅEp, 1Et, :R,] 烱銅獄[ㄷJ,] 典[\Ec, ㅍV, ㅅEp, 1Et, ㅁV, 1Ef,]
 <C자비20:20-21> 是 如[ㅍV, 1Et, 1J,] 各[ㅅJ,] 量 無[1Et,] 地獄[ㄷJ,] {有}[+V, ㅅEc,] 以[ㅅEc, ㅅJ,] 眷屬獄 為[ㅅV, ㅅEp, 1Ef,]
 <C자비20:21-21:01> 有[ㅅV, ㅅEp, 1Ef,] 一[1J,] 主[ㅁV, ㅅEp, ㅅEt,] 牛頭阿傍[:J,] 其性[ㅁJ,] 兇虐[ㅍV, ㅅEc,] 一[1J,] 慈忍[ㅅN, ㅅJ,] 無[ㅁEp, 1Et,]
 <C자비21:01-02> 諸[1Et,] 衆生[ㅁJ,] {此}[ㅁN,] 惡報[ㄷJ,] 受[ㅍEp, 1Et, ㄷJ,] 見[ㅁEp, ㅅR, 1Et,] 唯[ㅅM,] 憂[ㅅR, ㅍV, 1Et, ㅅN, 1J,] 苦[ㅁM, ㅍV, ㅅEt,] 不[ㅍV, ㅍEp, 1Et, ㅅJ, ㅍV, ㅅEc,] 唯[ㅅM,] 恐[ㅅN, 1J,] 毒[ㅅEt,] 不[/ V+Ep, ㅍV, ㅍEp, ㅅJ, ㅍV, ㅍEp, 1Ec-, ㄷ-Ec,]
 <C자비21:02-04> 或[1J,] 獄卒[ㅅJ-, ㅅ-J,] 問[ㅅEp, ㅅEf-, ㅅ-Ef,] 衆生[ㅁJ,] 苦[ㄷJ,] 受[ㅍEp, ㅅEp, 1Et, ㅅN, 1J,] 甚[ㅅM,] 悲念[/ V+Ep, ㅅEp-,] 可[ㅅ-Ep, ㅍV, 1Ec-, ㄷ-Ec,] 而[1R,] 汝[1J,] 常[ㅁJ,] 酷毒[ㄷJ,] 懷[ㅅR, ㅍV, ㅅEc,] 慈愍[/ V+Ep, ㅅEt+N, ㅅJ,] 心[ㅅN,] 無[ㅅV, ㅅEp, 1Ef, ㅍV, ㅁEp, ㅅEp, 1Ec,]
 <C자비21:04-05> 獄卒[1J,] 答[ㅍV, ㅅEc,] 言[ㅅEp, ㅅEf-, ㅅ-Ef,] 此 如[ㅍV, 1Et,] 罪惡[ㅅJ,] 諸[1Et,] 苦[ㄷJ,] 受[ㅍEp, 1Et, ㅅEt, ㅅJ,] 者[1J,] 父母[ㄷJ,] 孝[ㅅEt,] 不[ㅍV, ㅅEc,]
 <C자비21:05-07> 佛[ㄷJ,] 謗[ㅍV, ㅅEc,] 法[ㄷJ,] 謗[ㅍV, ㅅEc,] 諸[1Et,] 賢聖[ㄷJ,] 謗[ㅍV, ㅅEc,] 六親[ㄷJ,] 罵辱[ㅍV, ㅅEc,] 師長[ㄷJ,] 輕慢[ㅍV, ㅅEc,] 一切[ㄷJ,] 毀陷[ㅍV, ㅅEc,]
 <C자비21:07-09> 惡口[:J,] 兩舌[:J,] 諂曲[:J, / V+Ep, ㄷJ, ㅍV, ㅅEc,] 嫉妬[ㅍV, ㅅEc, ㅅJ,] 他[ㅅJ,] 骨肉[ㄷJ,] 離[ㅅV, ㅁV, ㅅEc,] 瞋恚殺害[ㅍV, ㅅEc,] 貪欲[ㅁV, ㅅEc,] 欺詐[ㅍV, ㅅEc,] 邪命[ㄷJ-, ㅅ-J,] 邪求[ㅍV, ㅅEc,] 及[ㅅM,] 以[ㅅEc,] 邪見[ㄷJ, ㅍV, ㅅEc,]
 <C자비21:09-10> 懈怠放逸[ㅍV, ㅅEc,] 諸[1Et,] 怨結[ㄷJ,] 造[ㅅV, ㅅEc, ㅍV, ㅅEp, 1Et, ㅅN, ㅅJ,] 是 如[ㅍV, ㅅEt,] {等}[ㅁV, ㅍV, ㅅEt, ㅅJ,] 人[ㅁJ,] 此[ㅅR,] 來[ㅍV, ㅅEc, ㅅJ,] 苦[ㄷJ,] 受[ㅍEp, 1Et, :R,]
 <C자비21:10-11> 免脫[/ V+Ep, ㅅEt+N, ㅅJ,]{之} 日[ㅁJ,] 至[1Et,] {每}[ㅁN, ㅅJ-, ㅁ-J,] 恒[ㅁM,] 加[ㅅM,] 勸喻[ㅍV, ㅁEp, ㅅEp, ㅅEf-, ㅅ-Ef,]
 <C자비21:11-12> 此 中[ㅅJ-, ㅅ-J,] 劇苦[1J,] 忍耐[ㅅN, ㅁN, ㅍV, ㅅEc, ㅅEp, ㅅEp-,] 可[ㅅ-Ep, ㅍV, 1Et,] 非[ㅅR+V, 1Ec-, ㄷ-Ec,] 汝[1J,] 今[1J?,] 得[ㅅEc, ㅅJ,] 出[ㅍV, ㅅEp, ㅅEp, 1Et, ㅁV, ㅅEc,] 復[ㅁ] 更[ㅅM,] 造[ㅅEt,] 勿[ㅅR, ㅅEp, ㅅEf, ㅍV, ㅁEp, ㅍEp, ㅅEp, 1Et, :R,]
 <C자비21:12-14> 而[1R,] 此 罪人[1J,] 初[ㅅM-, ㅅM-, ㅅJ,] 改悔[ㅅEt,] 無[1Et, ㅅN, ㅅJ,] 今日[ㅅJ-, ㅅ-J,] 得[ㅅEc, ㅅJ,] 出[ㅅEp, ㅅEt+N, ㅅR,] 俄[ㅅR, ㅍV, ㅅEt, ㅅJ,] 頃

[3 J-, + - J,] 復[1 Et,] 還[3 M,] 展轉輪迴[3 V, 3 Ec, 3 J,] 痛苦[3 V, 1 Et, 3 N, 3 J,] 知[3 Et,] 不[3 V+Ep, 3 V, 3 Ep, 1 Ec,]

<C자비21:14-15> 我[3 J,] 筋力[3 J-, 3 - J,] 此 衆生[3 J-, + - J,] 疲[侍][3 R, 3 R,](非) 令[3 V, 3 Ec, 3 J,] 劫[3 J,] 從[3 M, 劫 3 J-, + - J,] 至[3 M,] 其[3 J,] 與[3 M,] 相對[3 V, 3 Ep, 3 Ep, 1 Et, 3 N, 3 J,]

<C자비21:15-17> 是 事[3 J,] 以[1 Et, 3 N, 3 J,] 故[3 R,] 我[1 J,] {於}罪人[3 J-, + - J,] 片[3 N, 3 J,] 慈心[3 J,] 無[3 V, 3 Ec,] 故[3 R, 3 R, 3 R,] 楚毒[3 J,] 加[3 V, 3 Ep, 3 Ep, 1 Et, 3 N, 1 J,] 望[3 V, 1 Et, 3 N, 1 J,] 其 苦[3 V, 1 Et, 3 N, 3 J,] 知[(3 Ec,)] 慚[3 Ep, 1 Et, 3 N, 3 J,] 知[(3 Ec,)] 恥[3 Ep, 1 Et, 3 N, 3 J,] 知[(3 Ec,) 3 V, 3 Ec,] 復(甲) 更[3 M,] 還[3 M,] 不[3 V, 3 Ep, 3 R, 3 Ep, 1 Et, 3 N, 3 J, 3 R,]

<C자비21:17-18> {此}[3 N,] 衆生[3 J,] 觀[3 Ep, 1 Ec-, 3 - Ec,] 乃[3 R,] 苦[3 J-, + - J,] 至[3 M, 3 Ep, 3 Ep-,] 可[3 - Ep, 3 V, 1 Et, 3 V, 1 Ef-, 3 - Ef,] 終[3 V, 3 Ec,] 肯[3 Ep, 1 Et, 1 N,] 避[3 J,] 不[3 R+V, 3 Ep, 1 Et, 3 V, 3 Ef,]

<C자비21:18-19> 決[3 M,] 善[3 J,] 修[3 Ec, 3 J,] 泥洹[3 J-, + - J,] 往趣[3 V, 3 Et,] 不[3 R, 3 V, 3 Ep, 1 Et, 3 V, 3 Ec,] 既[3 J,] 是[1 J,] 無知[3 V, 3 Et, 3 J,]{之} 物[3 N, 3 V, 3 Ep, 1 Et,] 苦[3 J,] 避[3 V, 3 Ec,] 樂[3 J,] 求[3 V+Ep, 3 Et, 3 N, 3 J,] 知[3 Et,] 不[3 R, 3 V, 1 Et, 3 N, 3 J,]

<C자비21:20> 所以[3 R,] 痛[3 V+Ep, 3 Et, 3 N+J,] 劇[3 V, 3 Ec,] {於}人間[3 J-, + - J,] 倍[3 M, 3 V, 3 Ep, 3 R, 3 Ep, 3 Ep, 3 Ef,]

<C자비21:20-21> 何[3 M,] {於}此[3 J-, + - J,] 而[3 R,] 慈忍[3 J,] 生[3 V, 3 Ep, 3 Ep-,] 容[3 - Ep, 3 V, 3 Ep, 3 Et, 3 Ep, 3 V, 3 Ep, 3 Ef, 3 V, 3 Ep, 3 V, 3 Ep, 3 Ef,]

<C자비21:21-22> 今日 道場 同業 大衆[3 J,] 今[3 V, 1 Et,] 世(間牢獄比校) 以[3 R, 3 Ec,]

ミノ今ヲセ 苦乙X 現 受ト1 一切 衆生ヲ 罪垢乙X 洗除ソニ下ハ 得ルホ 清淨O 令リロハニ
ヽ

<A자비18:15-17> 今日 道場ヲセ 同リ 懺悔ソトイヒセ 者ミ 及セ 其 父母ミ 師長ミ 一切
眷屬ミノ今ヲ 罪垢乙X 洗除ソニ下ハ 得ホ 清淨O 令リロハニヽ

<A자비18:17-18> 又ッ1 六道 一切 衆生ヲ 罪垢乙X 洗除ソニ下ハ 道場ヲ+O 至リルホ 畢
竟 清淨 令リロハニ立

<A자비18:18-19:01> 今日乙X 從セ 去1 于道場ヲ+X 至リ 皆セ 得ホ 阿鼻地獄セ 苦ミ 及
セ 十方盡虛空界セ 不可說不可說 諸1 地獄セ 苦ミノ今乙X 斷除ソロハ

<A자비19:01-03> 畢竟 復[甲] 於三途ヲ+X 入尸X⁴⁾ 不ッヽ 畢竟 復[甲] 於地獄+X 墮尸X
不ッヽ 畢竟 復[甲] 十惡セ 業乙X 爲ミ 五逆セ 罪乙X 造ミソロハ 諸1 苦惱乙X 受尸O
不ッリセイソロノミセ1

<A자비19:03-04> 一切 衆1 罪乙X 願入1 盡ル 消滅スリロハニ立

<A자비19:03-07> 地獄 生乙X 捨ソロハ 淨土 生乙X 得ヽ 地獄セ 命乙X 捨ロハ 智慧セ 命
乙X 得ヽ 地獄 身乙X 捨ソロハ 金剛 身乙X 得ヽ 地獄 苦乙X 捨ソロハ 涅槃セ 樂乙X 得ヽ
地獄 苦乙X 念ッハ 菩提心乙X 發ッヽ

<A자비19:07-09> 四等ミ 六度ミノ今乙 常リ 得ホ 現前ッヽ 四辯ミ 六通ミノ今乙 意乙X 如
印 自在ヲッヽ 智慧乙X 具足ッルホ 菩薩道乙X 行ノ1ム 勇猛精進ッハ 不休不息ッヽ

<A자비19:07-11> 乃シ 至リ 進修ッルホ 十地セ 行乙X 滿ッヽ 金剛心ヲ+X 入ッルホ 等正
覺O 成ヽッハ 還支 十方 一切 衆生乙X 度リセイソロセノミセ1

<A자비19:12-14> 今日 道場 同業 大衆下 諸1 餘1 地獄ヲ+ 雜受ソトイ1 苦報1 復1
記ッルホ乙X 可セッ1O?⁵⁾ 不矢四 是X 如ッ1 名號リヽ 楚毒1 量 無ロ1乙X 相セ 與セ
披[非]覽[羅音]ッル 具ミ 其 事乙X⁶⁾ 見ロセノミセ1

<A자비19:14-16> 經ヲ+ 云ニ尸 閻羅王1 一念セ之 惡入乙… 便 獄事乙X 總[次集]ヲ 自ヲ
身ヲ+ 苦乙? 受イ尸ム 亦1 論ッルホ乙X 可セッ1O?⁷⁾ 不矢ロヒ1

<A자비19:16-18> 閻羅大王1 昔尸 毘沙國セ 王リ尸X 爲入ッ1ナ1 維陀始王乙X 與セッ
ルホ 共セ 戰イ1ム 兵セ 力リ 如[及]セX 不毛ッホッ1 因イ 誓願乙X 立リナ尸丁

<A자비19:18-19> 願入1 我1 後生ヲ+ 地獄ヲセ 主リ尸X 爲入ッハ 此 罪人乙X 治リロ
乙イミセ1ッナヽ 十八 大臣ミ 及セ 百1 萬 衆ミノ今ヲ 皆セ 悉ル 同リ 願乙ッナ1



4)



5)



6)



7)

<A자비19:20-20:02> 毘沙王リ₁ッ₁者 今セ 閻羅王リ 是リナ₁リ₁ 十八 大臣₁ 今セ 十八 獄セ 主リ 是リロ₁リ₁ 百 萬尸{之} 衆₁ 今セ 牛頭阿傍リ 是リロ₁ 而₁ 此 官屬リ 悉₁ 北方 毘沙門天王ヲ₁ 隸ナ₁リ₁ッ₁ロハニ₁

<A자비20:02-04> 長阿含經₁ヲ 云ニ尸 閻羅大王ヲ 住ノ₁ 所セ{之} 處₁ 閻浮提 南₁セ 金剛山 內₁ヲ 在ッ₁ 王宮セ 縱廣₁ 六セ 千₁ 由旬リ₁ッ₁ロハニ₁

<A자비20:04-05> 地獄經₁ヲ 云ニ尸 地獄セ 間₁ヲ 住ノ₁モセ 宮城セ 縱廣₁ 三セ 萬 里 리₁ 銅鐵₁ 成₁ 所リ₁

<A자비20:05-06> 晝夜 三時₁ヲ 大₁ 銅鑊₁ 有セ₁ 中₁ヲ 烔₁ 銅₁ 滿ッ₁ 自然 若 前₁ヲ 在ッ₁ハ₁乙

<A자비20:06-08> 大₁ 獄卒₁ 有₁ 王乙 臥₁ハ 熱₁ 鐵₁ 床₁ハ 上₁ヲ 鐵₁ 鉤₁ 口乙 擘[波]乙₁ 烔₁ 銅乙 之リヲ₁ 灌₁ロ₁

<A자비20:08-09> 咽乙 從セ 徹セ 下ッ₁ 焦爛尸₁ 不ッ₁尸₁丁₁尸₁ 無セ₁ 彼₁ 諸₁ 大臣 亦₁ 復₁ 是₁ 如₁支ッ₁ナ₁

<A자비20:09-10> 十八 獄王リ₁ 一₁ 曰₁尸₁ 迦延₁ノ₁ 泥犁獄乙₁ 典[次集]₁ 二セ₁ 號₁ 屈尊₁ノ₁ 刀山獄乙₁ 典[次集]₁

<A자비20:10-11> 三セ₁ 名₁ 沸壽₁ノ₁ 沸沙獄乙₁ 典[次集]₁ 四セ₁ 名₁ 沸曲₁ノ₁ 沸屎獄乙₁ 典[次集]₁

<A자비20:12-13> 五セ₁ 名₁ 迦世₁ノ₁ 黑耳獄乙₁ 典[次集]₁ 六セ₁ 名₁ [山+蓋][合]嗟[上若合反 下七何反]₁ノ₁ 火車獄乙₁ 典[次集]₁

<A자비20:13-14> 七セ₁ 名₁ 湯謂₁ノ₁ 鑊湯獄乙₁ 典[次集]₁ 八セ₁ 名₁ 鐵迦然₁ノ₁ 鐵床獄乙₁ 典[次集]₁

<A자비20:14-15> 九セ₁ 名₁ 惡生₁ノ₁ [山+蓋][合]山獄乙₁ 典[次集]₁ 十セ₁ 名₁ [呻吟] 寒氷獄乙₁ 典[次集]₁

<A자비20:15-16> 十一セ₁ 毘迦₁ノ₁ 剝[朴]皮獄乙₁ 典[次集]₁ 十二セ₁ 遙頭₁ノ₁ 畜生獄乙₁ 典[次集]₁

<A자비20:16-17> 十三セ₁ 提薄₁ノ₁ 刀兵獄乙₁ 典[次集]₁ 十四セ₁ 夷大₁ノ₁ 鐵磨獄乙₁ 典[次集]₁

<A자비20:18-19> 十五セ₁ 悅頭₁ノ₁ 寒氷獄乙₁ 典[次集]₁ 十六セ₁ 名₁ [穿骨] 鐵₁ 丹[州][支]冬反獄乙₁ 典[次集]₁

<A자비20:19-20> 十七セ₁ 名₁ 身₁ノ₁ 蛆虫獄乙₁ 典[次集]₁ 十八セ₁ 四₁ 觀身₁ノ₁ 烔銅獄乙₁ 典[次集]₁ッ₁ナ₁リ₁

<A자비20:20-21> 是₁ 如ッ₁ 各₁ 量₁ 無₁ 地獄乙₁ 有₁ 以₁ 眷屬獄₁ 爲₁ 一₁

<A자비20:21-21:01> 有セ₁ 一₁ 主₁ 牛頭阿傍₁ 其 性₁ 兇虐ッ₁ 一₁ 慈忍₁ 無₁ 無₁ロ₁

<A자비21:01-02> 諸₁ 衆生₁ 此₁ 惡報乙₁ 受₁ト₁乙₁ 見₁ロハ₁ 唯₁ 憂₁ッ₁ハ₁ 苦₁リ



ッ尸X 不ット1ホッ、唯ハ 恐入1 毒尸X 不ノットホット1乙

<A자비21:02-04> 或1 獄卒ヲ+X 問ナ尸丁 衆生リ 苦乙X 受トイ1入1 甚シ 悲念ノ忝X
可セッ1乙 而1 汝1 常リ 酷毒乙X 懷セッ、 慈愍ノ今セ 心忝X 無セナ1ッロナ1

<A자비21:04-05> 獄卒1 答ッ、 言ナ尸丁 此O 如ッ1 罪惡セ 諸1 苦乙X 受ト1ヒセ 者
1 父母乙X 孝尸X 不ッ、

<A자비21:05-07> 佛乙X 謗ッ、 法乙X 謗ッ、 諸1 賢聖乙X 謗ッ、 六親乙X 罵辱ッ、 師
長乙X 輕慢ッ、 一切乙X 毀陷[含]ッ、

<A자비21:07-09> 惡口、 兩舌、 諂曲、ノ乙ッ、 嫉妬ッ、ホ 他ヲ 骨肉乙X 離(ホ?)リ、 瞋
恚殺害ッ、 貪欲リ、 欺詐ッ、 邪命乙、 邪求ッ、 及セ 以、 邪見乙ッ、

<A자비21:09-10> 懈怠放逸ッ、 諸1 怨結乙X 造ッ、ッナ1入、 是O⁹⁾ 如ッ尸 等1ッヒセ
人リ 此ムO¹⁰⁾ 來ッ、ホ 苦乙X 受ト1、

<A자비21:10-11> 免脫ノ今セ之 日リX 至1X 毎1ヶ1 恒リ 加、 勸諭ッロイ尸丁

<A자비21:11-12> 此 中ヲセ 劇苦1 忍耐ヲリッ、忝X 可セッ1X 非矢1乙 汝1 今1 得
、ホ 出ッホナ1リ四 復[甲] 更、 造尸X 勿セナ四ッロトイ1、

<A자비21:12-14> 而1 此 罪人1 初セヲ斗 改悔尸X¹¹⁾ 無1入、 今日ヲ 得、ホ 出ホ今、
俄セッヒセ 頃ヲ 復1 還支 展轉輪迴ッ、ホ 痛苦リ1入乙X 知尸X 不ノッロ1

<A자비21:14-15> 我ヲ 筋[斤]力乙、 此 衆ヲ+O生 疲[侍]入乙[非]X 令リ、ホ 劫乙X¹²⁾ 從
セ 劫ヲ+X 至リ 其乙X 與セ 相對ットイ1入、

<A자비21:15-17> 是 事乙X 以(1入?)、 故ノ 我1 於罪人ヲ+ 片ヶセ 慈心刀X 無セ、 故
セ勿セ 楚毒乙X 加ットイ1入1 望リ1入1 其 苦リ1入乙X 知、 慚ヲ1入乙X 知、 恥ヲ
1入乙X 知、ッ、 復[甲] 更、 還支X 不ッロセ(尸?)1入、

<A자비21:17-18> 此リ 衆生乙X 觀ヲ1ム 乃シ 苦ヲ+O 至リ忝X 可セッ1リ1丁 終ッヲ
肯ヲ11 避リX 不矢ナ1リ1

<A자비21:18-19> 決、 善乙X 修、ホ 泥洹ヲ+X 往趣ッ尸X 不モット1リ四 既シ 是1 無



9)



10)



11)



12)

知ッモセ之 物セリロㄱ 苦乙X 避ッロ 樂乙X 求ノ尸入乙X 知尸X 不モッㄱ入ㄴ

<A자비21:20> 所以云 痛ノ尸矢 劇ッㄴ 於人間ㄴ十X 倍丨ッロセトㄱ丨

<A자비21:20-21> 何ㄴ 於此ㄴ十 而ㄴ 慈忍乙X 生リㄱㄴX 容セッㄱ尸ロット丨ッロハニ丨

<A자비21:21-22> 今日 道場 同業 大衆下 今ッㄱ 世(間牢獄比校)? 以(セ?)ㄴ